금주일언 스스로 제 몸을 사랑하는 자는 지킬 바를 삼가 지키고, 깨달음을 바라는자는 바른 도를 배워 쉬지 않는다
〈법구경 애신품 250절〉

# 東大新聞

발행인 구섭택
편집인 송석영
주간 석태창
부국장 정의기
편집국장 고이김

펴낸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제 1227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H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6월 2일 (월요일) 1

## 한총련, "그래도 갈길은 간다"

### 원천봉쇄 불구 출범식 강행의지 밝혀

### 경찰 강경진압으로 5백여명 연행 · 부상자 속출

제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강위원 ·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일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까지 한양대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순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날 고려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한총련은 한양대 진입을 위해 발표직후 진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2만여명의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은 30일부터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총련 출범식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모였으나 경찰의 강경한 불허방침으로 한양대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서울 곳곳에서 거리선전전과 시위를 벌였다. 시위 3일째인 지난 1일 서총련과 지역총련은 고려대에 모여 '한총련 출범식 사수를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한총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적인 출범식이 성사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위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5백명의 학생이 연행되었고, 양지영(경희대 1학년)양이 중태에 빠졌으며 본교 경상대 학생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코뼈가 함몰되는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4 · 5면〉

## 학부 · 계열 전공 및 학과 결정안 확정

### 입학정원의 1백 50% 우선배정 … 편중시 성적순

학적과(과장=안준옥)는 96년도이후 입학한 학부생 및 계열별 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 결정안을 지난 2일(월)에 확정 · 발표했다.

발표된 전공 및 학과 결정 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원 1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전공 및 학과결정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전공 및 학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전공 및 학과결정시 인원은 95학년도 입학정원의 50%에서 1백50%를 기준하되 지원학과의 1백50%를 우선 배정하고, 어느 특정 학과로 전공지원이 편중돼 1백50%를 초과한 경우 성적역순으로 차순위 지망전공에 배정한다.

전공 및 학과의 결정시기는 2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3학년 1학기 선수강 신청 및 복수전공 신청전에 전공결정을 완결한다.

성적기준은 3개학기 전체성적의 F학점을 포함한 평점 · 평균을 적용하는데 2개학기 이수자는 성적경쟁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전체취득학점을 우선에 두고 있다.

한편, 전공 미결정 3학년 1학기 복학생의 전공결정은 복학생들의 복학시기가 상이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3학년 1학기에 복학한 자는 2학년 2학기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학년 2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부득이 3학년에 복학한 자는 소속학부 및 계열내에서 전공을 결정하되 전학기 전공결정시 1백50%초과 전공 및 학과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편입생들의 경우는 이수학기가 1개학기로 일반학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별도로 전공 및 학과결정인원을 배정하며 당초입학자의 원칙을 준용한다.

금번 안과 관련 학적과는 "학부 및 계열학생들의 전공결정시 희망학과로의 지원이 우선시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전공 및 학과지원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안양암 윤규현 스님 2억 3천만원 기탁

### 20년간 근검절약으로 보시금 등 모아

원효종 안양암 윤규현 스님이 불교연구기금으로 2억 3천만원을 기탁했다.

석가탄신일인 지난 14일 낮 12시경 안양암에서 본교 송석구총장을 통해 전달된 이 기금은 윤규현 스님이 20여년간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법문을 한 후 받은 보시금 등을 쓰지 않고 모은 것으로 알려져 그 뜻을 더하고 있다. 안양암 신도들은 "방 도배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외출시에도 택시타기를 거부하시는 등 근검절약을 몸소 보이셨다"고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서 송석구 총장은 "스님께서 일생동안 모은 정재를 부처님의 뜻에 따라 무소유 정신으로 본교에 기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살려 한국불교학 발전에 긴요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개교 1백주년 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 · 선학)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더 많은 발전기금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아카예프 대통령 본교 명예 박사학위 수여

### 인권증진 ·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

키르기즈 공화국 아카예프 대통령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오늘(3일) 오후 2시 본교 중강당에서 열린다. 아카예프 대통령의 경호상 이유로 이날 본관 출입이 제한 · 통제된다.

국가간의 친선 및 협력을 통하여 인권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학위를 수여받는 아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90년 10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95년 선거에서는 9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시 선출되었다.

또한 아카예프 대통령은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고 국민복지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키르기즈 공화국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뛰어난 민주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국 참사람 봉사단' 출범

### 봉사활동 이수자에 1학점 부여

전반적인 사회봉사제도가 대학가에 정착하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동국참사람봉사단'이 출범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세기 복지사회의 선구적인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온누리에 지혜와 자비라는 동국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번 봉사단은 장학과(과장=오종호)에서 재학생, 교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여름방학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연4회(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실시하며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단위기간내에 소정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봉사단원은 연중 접수하며,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장학과에 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기간은 33시간(3시간 오리엔테이션 포함)이상으로 하며, 단위봉사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경우 1학점(pass제)을 부여한다 △봉사활동결과는 성적증명서에 p로 기재하며, 취업 · 진학을 위한 사회봉사인증서를 발급한다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한편 봉사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23일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오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계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봉사활동기간에는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봉사결과를 평가하며 이수자 명단을 교무처에 통보한다. 성적의 경우 춘계 · 하계 봉사활동자는 1학기 성적표에 반영하며, 추계 · 동계 봉사활동자는 2학기 성적표에 반영된다.

현재 봉사대상업체는 약 55개 정도로 지역복지업체, 사회시민단체, 노인 · 장애인복지단체 등 다양하다.

봉사단 출범과 관련 장학과측은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약한 이웃을 도우며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경험교육으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 밝히며 "사회봉사자를 희망하는 수요에 맞추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 리 수

### 달라이 라마

티벳의 승왕(僧王) 달라이 라마는 티벳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다. 토번(吐番) 자치령으로 중국에 귀속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망명정부의 수반으로서 중국과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원래 라마(Lama)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 지금의 달라이 라마는 14대이며, 독특한 환생의 믿음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열일곱살 때 고향을 등지고, 이제 회갑을 넘겼으니까 그 고달픈 망명의 여정도 벌써 반세기를 넘어섰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인상적인 수상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불교의 무기는 자비(慈悲)이다. 자비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의미이지만, 좁게 해석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비로 뭉쳐질때만 인류의 불행은 종식될 수 있다" 그는 현재 인도의 다람사알라라는 히말라야 기슭에서 움막같은 집을 짓고 산다. 그를 친견하려는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을 접견하는 것이 주된 일과이다. 또 1백여군데에 이르는 세계 여러 곳의 티벳본부를 한 두 차례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연중행사이다. 나는 두 차례 그와 대담을 하였다. 첫번째는 불교 방송국 개국때 그를 초청하려는 목적이었고 두번째는 한국의 불교신자들과 함께 인도의 델리에서 달라이 라마 초청법회를 열면서 법문통역을 맡았었다. 그는 매우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인상은 솔직하고 쾌활하다는 느낌이었다. 투사적인 살벌함, 한에 맺힌 냉소적이고 우울한 페이소스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인상을 중히 여긴다. 일본의 속담에도 '사십넘은 사나이의 얼굴은 그의 이력서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처절한 생존투쟁과 고독한 자기수련의 길을 거듭한 그에게, 어째서 반골의 이미지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 연유를 부처님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이다. 맹목적인 적개심, 핏빛 어린 절규는 결코 현실의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 미움은 복수의 윤회를 거듭할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자비의 여로이며, 또 그 실증(實證)이다. 부처님과 같은 삶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동일 수 있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아직 우리 나라를 방문하지 못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우리학교에 기증한 티벳대장경 완질이 우리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 넉넉한 웃음을 동악(東岳)에서 볼 수 있을런지.

**정 병 조**
문과대 인문학부 교수

## 지 면 안 내

■ 4,5면 — 원천봉쇄로 지연된 한총련 출범식
강경진압으로 5백여명 연행 · 부상자 발생
■ 6,7면 — 동대백일장 수상작을 통해
예비문학도들의 역량을 엿본다.
■ 8면 — 87년 6월 상황 정리, 당시 취재기, 김중배씨 인터뷰로
6월 항쟁을 알아본다.
■ 9면 — 통신망속의 '동대방'을 헤쳐본다.
"인터넷 아이디가 무료 발급된다?!"

## 교수동정

▲한상범(법학)=지난 3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됐다.

▲박병식(행정학)=오는 9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환교수로 파견.

▲정봉진(고고미술사학)=오는 9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미국 뉴욕대 교환교수로 파견.

### 알 — 림

본지는 제1227호 종강호를 끝으로 1학기 신문 발행을 마칩니다.
2학기에는 보다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그날은 무엇인가
### -6월항쟁 10주년을 맞아

고 은

오늘은 무엇인가
그날은 1987년 6월의 거리마다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1987년 6월의 낮과 밤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1987년 6월의 거리마다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1987년 6월로 부터
1997년 6월에 이르기 까지
그날은 무엇인가
오늘은 무엇인가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의 어둠을 밀어내어
역사를
바꿔 놓았다
그날은 무엇인가
백만명이 모여 들었다
천만명의 뜻을 모아 한밤중이었고
낮의 시청 광장이었다
하여 피어난 영광이었다 노래였다
대낮의 시청 광장이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떨어진 한 줄기 빛이었다
떨어진 한 줄기 빛이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날은 무엇인가
그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

# 열린 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9 번방, ID:dgpress메일)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 · (0561)770-2057 · 8

## 혜화관 뒷편 쓰레기 악취 심해

하루가 다르게 날은 점점 길어지고 하늘은 푸르게 변함에 따라서 학생들은 여기저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좋아 질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곳이 있다. 다름아닌 혜화관 뒷편이다. 정각원을 지나 동국관으로 가다보면 심한 악취가 난다. 바로 쓰레기 차의 주차장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차가 놓여진 그 쪽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 등의 이유로 자주 지나가고 그 앞의 나무 그늘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요즘은 쓰레기 악취로 인해 그늘진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볼수 가 없다.

또한 지나갈때 숨을 쉬지 않고 빠르게 뛰어 가는 학생들도 보인다. 나 역시 그 앞을 지날때는 코를 막고 지나간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길에 쓰레기 차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일이다. 또한,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 앞의 악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교는 그리 넓지도 않아서 조용히 쉴 공간도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팔정도 주변과 학림관앞, 동국관앞의 벤치 등이며 쓰레기차가 놓여진 맞은편의 그늘은 동국관을 이용하는 이에게 시원한 그늘이 준비되어 있는 좋은 휴식터였다.

이곳에 쓰레기차를 세워 둔다면 학생들을 생각해서 그 관리를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에 세워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더운 여름을 그늘진 그곳에서 보낼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 상 운
〈사과대 신방과〉

## 동악의 흡연 남을 위하는 자세 필요

요즘 어지간한 공공건물과 회사들은 건물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는 수업이 끝난 직후나 시간만 되면 복도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로 인해 연기로 가득차 버린다.

학술문화관의 경우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복도 곳곳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강의실 바닥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강의실에서도 흡연을 하는 이도 있는 듯 싶다.

그 뿐이 아니다. 건물밖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건물안 보다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며 담배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그리 보기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교수가 지나가든 나이든 어른이 지나가든 아랑곳 없이 입에 담배를 물고 다니는 학생들.

물론 담배를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단지 장소를 가려서 피우기를 바랄 뿐이다.

건물내의 흡연은 수업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며 그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흡연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도·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 현실에서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재가 엇은 아니다.

다만 흡연자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 경 욱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 자기물건 소중히 몽당연필 되새겨야

식사시 돈 1백원을 아끼면 북한 주민 3끼를 먹을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1백원이 아닌 엄청난 양의 개인 물품들을 잃어버려도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지하철의 분실물 보관소에는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보관소가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다. 본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책상위에 놓여있는 볼펜 또는 교수의 유인물들. 잃어버린 그들은 또다시 볼펜을 사고 친구의 유인물을 복사할 것이다. 그다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다시 사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물건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이가 없기 때문에 찾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지갑 등을 잃어버려도 그저 다시 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찾아가는 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을 출입하다보면 수위실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학생증·지갑을 찾아가라는 듯이 학생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분실하는 이가 많은 것이지 수위실의 분실물은 풀어들지 않는다.

옛날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은 몽당연필이 아까워 볼펜대를 끼워쓰는 세대였다. 그리고 우리의 누나·형들들은 자신의 물건에 일일이 자기이름을 붙여 자신의 물건에 애정을 가졌고 소중히 다뤘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세월을 잊어버린채 그저 잃어버리면 새로운 것 하나를 다시 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

손 성 희
〈경상대 회계학부〉

## 생활관, 오픈하우스 재조명 되어야

지난 호 동대신문에 실린 금장 생활관 오픈 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관생 학우의 투고에 대해 준비 기간 때부터 행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에 글을 적어 본다.

27일, 과연 관생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자치 위원을 제외한 8백 30명 중 4백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조한 참여율'이란 글과는 달리 78%에 해당하는 관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떤 근거에서 자치위원과 몇몇 관생만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관생 참여 유도라는 취지에서 실시한 남·여 경매팅,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2명을 중심으로 한 남·녀 사체과 학우들의 스포츠 에어로빅 등에서 여성만을 특정 지칭하여 상품화하였다고 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 '행사간 연결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은 남·녀동 모든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독 금·생만이 결산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역시 학기말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금·생 결산 방식을 무시한 억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학우는 비관생으로 관생을 위한 행사에 왜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지, 오픈 하우스 문제점과는 관계없이 남동 자치회장의 공약 사항이 비관생인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신입생으로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예년과 다르다는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독 남동의 공약 사항만을 지적한 것은 현 남동 자치 위원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행사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킨 것 같다.

끝으로 행사 진행을 도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글을 통해 금·생의 오픈 하우스가 바른 시각으로 재조명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근 혜
〈인문대 인문과학부〉

## 주인의식 부재 강의실 내것처럼

1교시 수업을 위해 바쁜 걸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야말로 '난장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어제 무슨 파티를 했는지 몰라도, 케이크의 크림이 교탁, 벽, 책·걸상, 칠판 할 것 없이 구석구석에 까지 묻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케이크 던지기 게임이 벌어진 듯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어지럽혀 놓은 분들(?)이 책걸상은 그냥 두었을 리 없다.

나는 책가방을 내릴 틈도 없이 책상 정리부터 하고, 휴지로 크림을 닦았다. 그런데 그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우선은 큰 덩어리만 떼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제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아니다.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식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아주머니들도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용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아주머니가 있어도 온 방골의 주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등투'가 아닐까 생각한다.

박 춘 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 오솔길

김현식(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 현장실습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함 느껴

"유물을 소장할 장소 마련 되었으면…"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고 시계 태엽처럼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과는 달리 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한 젊은이가 있어 그를 만나보았다.

현재 본교 경주캠 고고미술사학과(이하 고미사) 4학년에 재학중인 김현식군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다름아닌 도서관 1층에 위치한 고미사 실습실이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를 끔지락거리며, 머나먼 옛 조상들의 차취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고미사라는 이름이 일반 학생들에겐 다소 생소한 면이 있다는 말에 그는 "선사시대 위주의 과거 유적을 복원하는 고고학에 미적인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미술사학을 접목시킨거라며" 다소 서툴게 설명한다.

지난 86년에 신설된 이 학과는 현재 전국 7개 대학에 편성돼 있으며, 본교의 경우 특히 신라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매장돼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론적 학습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로 학습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3학년 2학기때부터 발굴 현장에 참여하게 된 그는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옛 선조들의 지혜와 땀이 배인것이어서 다루는데 한층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굴된 많은 유물들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못내 아쉬워한다.

이는 비단 본교 박물관의 상황만이 아니라 경주시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은 황성공원에 실내 체육관을 짓고, 무수한 유물들이 발굴되던 동천동 발굴 현장에 시멘트를 덮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 기슭에는 대규모의 위락시설을 짓는다고 한다.

동천동 발굴현장에 참여한 그는 문화유적과 관련해 "현행법에는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일단 하던 공사나 건설을 뒤로한 채 그 지역을 발굴 지역으로 지정한 후 출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영리만을 챙기는 오늘의 풍토를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건 문화재 관리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겠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발굴된 선조들의 혼과 지혜가 모두 소장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됨과 동시에 문화재 관리 측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상기된 표정에선 또다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

## 독자만평

최 정 만
〈상경대 국제통상학과〉

## 나기

### 배낭여행

▶ 단 혼자서 떠나도 재미있는 여행.
▶ 여럿이 같이 여행을 가도 돌아올때는 각자 귀국하는 여행.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
▶ 하루빨리 북으로도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 나도 떠나고 싶다. 어디든지.
▶ 강대국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수 있다. 미국이 더러운 사회인걸 깨닫게 되리라.
▶ 우리나라의 물가는 너무도 비싸다. 같은 국내 상표라도 해외가 싸다. 그러니 해외에서 몰래 가져다 들어오지, 쯧쯧.
▶ 국내나 다 돌아보고 나서!!
▶ 우리집에는 배낭이 없는데? 보따리라도.
▶ 연인끼리 떠나면 밀월여행이 되는 것.
▶ 가는 것은 좋지만 해외에 갔다 온거 자랑 하는 사람이 제일 꼴볼견이다.
▶ 정말 가방만 메고 떠나는 여행인가?
▶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서 떠나고 싶은 것.
▶ '배'는 고프지지만 '남'만이 있는 여행.
▶ 잘못가면 돈버리고 몸버리고, 잘가도 사진만 남는다.
▶ 난 맨날 배낭메고 학교로 여행온다.
▶ 두명이 가서 셋이 되어 오는 경우도…
▶ 말이 배낭이지 어~엄청난 비용.
▶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 나는 자유인이다.
▶ 경비는 얼마나?
▶ 철원으로 배낭메고 여행 오세요.
햅쌀로 밥해드려요.

# 동/악/광/장

## 목멱골

### ◇ 축하합니다

■ 수교과 고귀은(95) 너의 100일을 축하한다. 공부좀 해라.
■ 심슨이 언제 소개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싱글을 탈피하기를 기원하면서 어째든 축하축하!!
■ 지났지만 헤어 최의 생일을 축하!
- 39기 개들,37기
■ 경희야 신문사 들어간 것 축하해
- 누굴까용?

### ◇ 수고하셨습니다

■ 공연 끝나고 늘어져있을 뭉그리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더 멋진 공연(지겨워라)을 위해!
- 뭉그리
■ 출범식 가신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현여울 임원단 및 후배여러분 일일호프 및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홍석이도 노래 하느라 수고 많았다.
■ 신이형, 지수형, 은영이형 방송실 습준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고 술 한 번 살께요.
- 항상 바쁜이
■ 출범식에 다녀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야디야 투쟁!
- 투쟁이
■ K·Y 출범식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 H

### ◇ 열심히합시다

■ 공연도 못보고 술 한잔 못사줘서 더욱 아쉽구나. 공연하느라 수고많았다. 뭉게구름 화이팅!
- 바쁜 선배
■ 이제 며칠 있으면 기말고사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 학구파
■ 여주, 미연, 지영아 주·화·서 빨리 시작하자.
- 미스 조

### ◇ 알립니다

■ 농어촌 연구부 '푸름누리'41주년 돌잔치 6월8일 일요일 많은 참여바람.
- 농연인
■ 이제 0404 사랑하는 것을 알립니다. 0404는 이제 제것!
- Who
■ 우리 인택이의 생일이 6월 8일 입니다. 잊지말고 삐삐라도 쳐줍시다.
- 015-122-7435

### ◇ 그리고

■ 공주님에게…
항상 바람만 맞추고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놀아 주지도 못하고…,
항상 시간 없다고 투덜거리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 사랑하는 h가
■ 출범식을 사수하자!!
■ 산·공·과 91학번 도명수 오빠가 앞으로 힘찬 미래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글을 씁니다! 명수오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련을 이기고 솔로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 간만에 휴학생이 등산(?)을 했다. 지현, 보경, 현정언니! 졸지말구 수업 잘들어~
- 휴학생
■ 방금 졸업사진을 찍었다 재미없었지만 애들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휴학생 진영이도 오고해서 기뻤다.
- 94.지현
■ 나는 03당이 싫어요.
- 이함복 어린이
■ 벼락을 맞아도 싸지,암~
- 코끼리
■ 사랑합니다. S·G
- Y
■ 부처님,기왕 벼락을 내리시려면 03이 머리위에 내리시지 그러셨어요. 다음 벼락 기대해 볼께요.
- 기
■ 형우야! 좋은 얼굴로 만나니 기분이 따봉!
- Who
■ 영수야! 정말 멋있었다. 다음에는 꼭 꽃다발 들고가마.
- 은순
■ N 그냥 많이 고맙다.
- D

| 다향관 식당 | | |
|---|---|---|
| 월 | 미트볼스튜(1,500) | 소고기 야채밥(1,300) |
| 화 | 카레라이스(1,200) | 후랑크 볶음밥(1,200) |
| 수 | 열무비빔밥(1,200) | 생선까스(1,300) |
| 목 | 콩나물볶음밥(1,200) | 튀김덮밥(1,200) |
| 토 | 닭도리탕(1,500) | |
| **동국관 학생식당** | | |
| 월 | 두부 김치(1,200) | 육개장(1,300) |
| 화 | 돈육잡탕 찌개(1,300) | 한치 회덮밥(1,500) |
| 수 | 함박스텍(1,500) | 버섯장국(1,200) |
| 목 | 동태 찌개(1,300) | 소고기 볶음밥(1,300) |
| **동국관 교직원식당** | | |
| 월 | 연두부 백반(2,800) | 돈육양념구이(3,200) |
| 화 | 조기 매운탕(3,000) | 오색별미밥(3,000) |
| 수 | 부대 찌개(3,000) | 양장피 잡채(3,200) |
| 목 | 북어국(2,800) | 비후까스(3,200) |

## 온방골

### ◇ 축하합니다

■ 5월 30일은 제 14대 중심잡는 총대의원회 댓빵 의장님 생일 축하! (강제로 쓰라고 했음)
■ 국사학과 학술 동아리 토함 사학회의 15돌 축하해주세요. 토함 화이팅!
■ 6월 1일 법학과 1학년 김순종군의 생일을 하숙집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살아라 순종.
- PARK
■ 관광경영학부 97강태구 생일을 축하해요.
■ 제 2차 수스비들 뽑힌거 축하드려요. 잘해봅시다.
■ 6월 15일 생일인 가정교육과 3학년인 영미언니 무지무지하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사시길 바래용…
- 언니옆에 있는 한 가교인

### ◇ 수고하셨습니다

■ 기현아! 오늘 (28일) 멋진 공연 보여줘! 힘내라 화이팅! →기현아 잘했다. 멋지다 유로스 수고하셨습니다. 태우야! 정말 멋졌다. - H·n
■ 112 학군단 연꽃제 준비하느라 3학년 후배들 정말 수고했다. 더욱 멋진모습 기대하며 훌륭한 장교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건강하기 바람~
- 간담써늘
■ 토함 일일찻집 한다고 수고 많았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함인이 되기를… 토함 사랑한다.
- 회장
■ '경서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동묵회원들 수고하셨습니다.
- 18기 빵
■ 정보산업 4학년 학우님들 취직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모두 지칠줄 모르는 노력의 날개를 활짝 펼칩시다. 열심히 하세요.
-b·p
■ 박회장! 1년조 XEVI뻠에 수고 많았어요.
■ 경서대회를 성황리에 끝낸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원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묵 화이팅!
■ 소아 선배 공연준비 수고 하셨어요.
- 97,8기 일똥
■ 창고 아그들아! 새로 나느라 수고했다. ! 푹 쉬어라. 선배 수고했습니다.
- 토끼
■ 영식군! 매일 아침 깨워주느라 수고가 많구나. 언제 한번 맛난 거 사줄께
- 일백십일호

### ◇ 열심히합시다

■ 동국 농구부 이번 대회에서는(경주 시장배) 꼭 우승하자.
- 최고 학년 J·H
■ 소중한 아이들아, 공연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꾸나. 소·아 화이팅 ! - 96

### ◇ 알립니다

■ 드디어 통일 일꾼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집체공연 성공을 기원하며. 월성 중학교에서…
- 쁠록이
■ 남의 자보 위에 다른자보 붙이지 말시다.
■ You-Loss 선·후배님 저, 공주는 제주도로 졸업여행 떠납니다. 오늘 공연 무사히! 멋진 공연을
- 4기 은영
■ 혁이랑 영권이가 월급탔데. 94 다모이 효식이 삐고…
■ 경·야의 자랑 94야수가 제대 며칠 남기고 학교 구경차 왔어요. -물리지 마셔요.!조심!
- 93
■ 일신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꾀병은 아닌듯 하니 우리모두 문병갑시다
- 청년법정 B

### ◇ 그리고…

■ 식당메뉴가 너무 적습니다. 라이스는 안합니까?
- 불꽃남자
■ 대륜·정화 동문회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바랍니다.
- 대륜·정화
■ 컴퓨터 실습실, 학생회관 매점 늦게까지 합시다.
- 왕눈이
■ 도서관 2층 창고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 시간 늘려 주세요… 자료 찾기가 빠듯!
■ 신성,규성선배 온방골로 다시 오셔서 환영 또 환영이예요
- 못냄이가
■ 국박,수박,사오,생이,영만,국재,영이 스승님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무척 궁금하고 뵙고 싶네요.
- 못난 제자 올림
■ 재원아, 현경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의 사랑 변치않길…
- 차인태
■ 곧 축제기간! 정보산업(야) 신나게들 재밌게들 놀아요!(마지막 축제)

# 대선자금 딜레마 정치개혁으로 넘어서야

심 익 섭
사과대 행정학과교수

## 시사논단

### 5·30 대통령담화의 부조리

지난 5월30일 김영삼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92년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것은 표현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물론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반부패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나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은 담화내용의 수준은 고사하고 진솔한 마음도 읽을수 없었다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있다. 국민에 죄송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참회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말의 무게나 의미를 별로 느낄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료가 없어 대선자금 내용을 밝힐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은 극히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쳤을 뿐만 아니라, 한보사건 등으로 맥이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신감과 함께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처럼 선거비용 상한선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 담화에서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선후보 조차도 선거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쓰고 남은 막대한 자금을 대통령의 차남이 관리해왔다는 사실 또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점에서만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선관위에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선자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미 비자금사건 수사때이나, 최근 3개월간 정부·여당의 대응은 대선자금 딜레마를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입장 뒤집기만을 반복하는 극히 저급한 수준을 맴돌았다. 지난 2월25일 담화에서 김대통령은 과거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대선자금 공개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전모공개는 어렵다고 꼬리를 내리더니, 속시원히 밝힐 자료가 없다면서 당대표를 통해 슬쩍 국민을 시험한 후, 여론에 밀려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결단도 없고 인간적 솔직함도 없는 자기모순적 발언으로 스스로의 한계만을 확인시켜주고 말았다.

이처럼 정치적 파국 직전으로 치닫는데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무한책임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당의 대표나 대권주자라는 '거물'들이 제왕같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노라 바빠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나칠 정도로 말바꾸기를 예사로 하고 '반장후보' 정도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곧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바로 현실과 타협하는 듯한 말을 하고, 대국적 입장에서보다는 자신의 입지만을 앞세우는 듯한 행태가 여권의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다.

제 도끼에 발등찍힌 정부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목청을 돋우며 강도높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야당의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듯한 정략적이고 상황적응적인 대응도 역시 국민들이 식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선자금 딜레마는 현 대통령이나 여당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정치권의 공동과제이며 이때문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인 대선자금 문제로, 나아가 정쟁(政爭) 때문에 나라가 결단나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야 말로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총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화급한 과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선자금의 본체를 밝혀 어두운 과거사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돈많이 드는 선거같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에서처럼 과거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정치개혁을 성공시켜 재발방지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진정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이때문에 대선자금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는 분리될 성질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전 매스컴들의 대대적인 '97 대선캠페인과 정치개혁 논의가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으로는 지방화요 밖으로는 세계화의 열풍에 쌓여 발벗고 뛰어야 할 이때,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기(氣)를 빼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5·30담화는 "남은 임기중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말로 끝난다. 바라건데 제발 민심좀 바로 읽고,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 만이라도 잘 마무리 하겠다는 소박한 자세로 돌아갔으면 한다. 경제불황에다 이제 '정치실패'까지 겹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길은 그나마 문민시대를 열었던 김대통령의 마지막 카드에 달려있다.

## 사설

### 평화적인 한총련 출범식 보장해야

올해로 5회째 맞는 한총련 출범식은 유사이래 가장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한양대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2만여명의 학생들은 여러차례 한양대로 들어가기 위해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국민 선전에 나섰다. 3일째 되던 지난 1일 서총련과 지역총련은 고려대에 모여 '출범식사수와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고 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향후대책을 논의한 한총련은 오늘(3일)오후부터 한양대에서 한총련출범식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일주일전부터 한양대를 원천봉쇄한 당국은 한양대로 들어가지 못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직격최루탄을 쏘며 토끼몰이식 진압을 자행했고 이를 항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칙칙이를 마구잡이로 난사했다. 한총련 죽이기는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의 원천봉쇄, 강경진압은 축소보도로 일관한 채 '교통체증'과 '폭력시위'만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특히 남총련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기차를 세워 타고온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기차탈취' 운운하며 폭도로 매도했지만 경찰이 전국 중소도시 역과 터미널에서 일일이 가방까지 열어가며 검문검색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함구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건 출범식의 의의는 중대한 것이지만 한총련이 이번 출범식에 두는 의의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의의는 작년 8월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 탄압으로 인해 위축된 학생운동 역량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87년 6월항쟁 10주기를 맞이해 다시한번 전민항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지는 결국 '한보비리, 대선자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김영삼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으로 귀결되는데 정부가 그토록 출범식을 탄압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총련탄압책은 5.30대통령담화에 대한 대국민 반응처럼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백만학생 축제의 장인 출범식장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평화적인 출범식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과 칙칙이를 난사함으로써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의 목소리를 오히려 높이게 했다. 한총련은 이미 작년 8월이후 학생운동의 노선과 운동방식에 대해 충분히 자성하고 있음을 시인했고 이번 출범식 역시 이 선상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년보다 강도높은 탄압으로 출범식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명분없는 출범식 탄압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한총련출범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학생회관 24시간 개방' 표류

# 야간잔류 신청제있어 전면개방은 무리

## 동연내 반대의견부터 수렴해야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제 13대 동아리연합회(회장=김명희·역교4 이하 동연)는 학생회관을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측에 보냈고, 이에 학교측은 24시간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회답을 했다.

논란은 지난 4월 17일 동연 1/4분기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기타안건 상정 때 한 동아리 대표자의 '학관 개방' 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대표자가 폐해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를 했고, 다수의 대표자들은 그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런 찬·반 논의는 학관 개방에 대한 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짧게 끝났다.

그 후 동연은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해 22개 동아리에서 35장을 받아 분석한 결과 6장만을 제외한 29장이 찬성이었다. 이 설문조사결과와 제의배경, 동연학관개방에 대한 당위성·원칙 및 준수사항, 타학교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문을 지난 5월 15일 학교측에 보냈다. 이 공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학생자치보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원칙 및 준수사항은 △철저한 문단속으로 도난을 미연에 방지 △가연성 물질 사용금지로 화재 방지 △도난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동아리에 있음 등이다.

그러나 6일후인 21일 학교측의 회답은 '안된다'였다. 도난과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학생회관이 술집이나 도박판, 잠자리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학생과 직원 정경섭씨는 "도난, 화재, 음주, 기숙, 노름 등 관리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야간 잔류신청이 되는 상황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학관개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몇개 동아리가 학생과에 '개방불가'의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관 개방에 대한 동연과 학교측간의 논란 이전에 동아리 연합 내에서 조차 찬·반 양론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크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동아리는 서도회(회장=하승기·공학계열2)이다. 학생회관을 개방하면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작품이 하나에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라서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수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이다. 서도회 회장인 하승기군은 "분실사고는 비단 우리 동아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밤을 새우며까지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역설한다.

학교측의 불가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동연은 여론을 수렴해 3천동아리인의 의사를 모아 다시 공문을 보낼 계획이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반대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문과대의 한 학우는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동아리실에서 술판이 벌어질 모습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는 등 여러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학관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동아리 내에서도 찬·반 양립으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리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다. 3천동아리인들이 모두 찬성을 해도 학교측에선 절대불가 입장임을 감안할 때 이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수 있다.

학관개방 주장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은 '야간잔류 신청 제도'에 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밤 11시 이후에도 동아리실에 남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관개방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외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도난과 화재는 둘째치고, 학생회관 분위기가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 학생자치규찰대를 운영한다 해도 문제점을 1백%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학생회관 24시간 개방'과 '현 체제 유지' 중 무엇이 진정 학우들을 위한 것인가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용환 기자〉

동국만평

고 대 성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생맹?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아직도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미래가 불안한 '생맹(生盲)'입니다.

생명보험 TV광고 아이디어 공모

든든한 미래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 주십시오.

1. 대 상
• 전문대이상의 대학생(광고 동아리), 생명보험업계 종사자(생활설계사/영업소장 등) 및 관심있는 일반인

2. 응모방법
• 광고주제: 위험보장보험 + 연금보험
사고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노후는 결코 먼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명보험으로 자신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든든한 미래준비,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 응모요령: TV광고 아이디어를 콘티 또는 A4지 1매 내외로 정리하여 방문 또는 우편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97년 6월 30일(월)까지
• 응 모 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
• 수상작 발표: 월간생협(생명보험협회지) '97년 7월호에 발표 및 회원사 홍보부,대학 학과사무실를 통한 개별 통보.
• 심 사: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 문 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02)275-6051, 진애드 기획국 (02)514-1002

3. 시 상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5점) : 상금 각 30만원

■'96 생명보험TV-CM『생명보험 생활』편

오세훈)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노후는 멀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이제 생명보험은생활입니다
NA)생명보험

※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작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 저작권은 생명보험협회에 귀속됩니다
※ 제출시 우측상단에 응모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모델명과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대한생명 / 제일생명 / 삼성생명 / 흥국생명 / 교보생명 / 동아생명 / 대신생명 / 태평양생명 / 국민생명 / 한덕생명 / 한국생명 / 신한생명 / 동부생명 / 동양생명 / 코오롱-메트생명 / 고려생명 / 삼신올스테이트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 고합뉴욕생명 / 한성생명 / 조선생명 / 금호생명 / 중앙생명 / 국제생명 / 두원생명 / BYC생명 / 태양생명 / 한일생명 / 네덜란드생명 / 푸르덴셜생명 / 프랑스생명 / 라이나생명 / 아메리카생명

# 제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상황

## 취 재 낙 수

### 두더지?!

○… 6월 1일 오후 5시경. 상왕십리에서 모이기로 했던 한총련의 약속(?)이 갑자기 나타난 전경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하철역 부근에서 기웃거리던 학생들, 전경들을 보고 순간 당황해 지하철로 대피. 피할 곳 없는 학생들이 결국 택한 비상구는 지하 철로! 상왕십리에서 신당역까지 그들은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학생들의 이같은 탈출방법을 보고 한쪽에선 불법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에 한 학생 한마디 "땅엔 몽둥이 든 전투경찰, 하늘엔 최루액 뿌리는 헬기가 있으니, 땅굴이라도 파야지 별 수 있나요?"

### 민주강아지

○… 1일, 한양대에 진입하지 못해 중앙대에서 밤을 보낸 학생들은 흑석동 곳곳에서 '출범식 사수', '김영삼 퇴진'을 외치며 거리선전전을 펼쳤는데.

학생들의 투쟁에 공감을 한 동네 주민들이 "학생, 피곤하지?"하며 돌린 생수와 쵸코파이, 요쿠르트에 용기를 얻은 학생들은 동네 개들이 짓는 것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려는 투쟁(?)의 외침으로 들렸다고.

이에 한 학생 왈 "역시 민주 시민은 민주 강아지만 길러요."

### 민주전경?!

○… 전경들의 최루탄은 이제 타겟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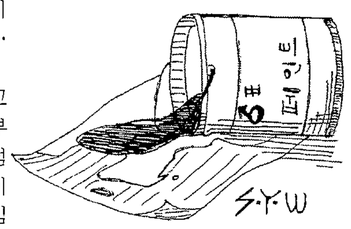
지난 30일 왕십리에서 전경에 의해 사수대 한 명이 끌려가는 것을 본 할아버지께서 "내 자식 같은 아이를 왜 끌고가냐"며 말려, 전경과 할아버지는 줄다리기(?)를 벌였다고.

승부가 나질 않자 전경이 할아버지를 향해 칙칙이를 쏘아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쓰러지니, 주위에 있던 시민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이에 한 시민 왈 "차별없는 공격을 가하는 전경은 민주 전경?"

## 동악로

### 페인트 통




"진급이 늦어도 묵묵히 감싸주는 아내가 있는… 가족이 소중하다"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이다. 이 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감이 넘치는 가정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남성중심적 고정관념 속에서 구성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있다.

서울캠 총여학생회는 '그대 당당한 여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여성주간'을 선포했다.

그 중 눈길을 끈 것은 '여성을 분노케하는 일상'이라는 전시물이었다. 여성들을 성적 상품화로 전락시킨 만화와 매맞는 아내들의 상처투성이 사진, 성적 자극을 연상시키는 무수한 상품들의 광고, 그런 것들이 통로형 구조물을 덮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분노케 하는 일상'에 분노하는 건 오히려 남성들이었나 보다.

"선전물을 만드는데 페인트통을 차고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것밖에 야한 게 없냐며, 친구들과 몰려 다니는 남학생들도 있었죠"

전시물을 제작한 신순옥(영문2) 성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여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해석한다.

"밀폐된 공간에 천막을 씌운 것은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학생들이 신중히 성을 생각해 보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둠 안에서 여성은 어떤 위험을 느끼며,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길 말입니다" 신순옥 위원장은 전한다.

학생들의 의견란에는 자신의 주변에도 성추행을 당한 친구가 있다며, 아픔을 공감한다는 까만 글씨가 자리잡혀 있다.

여성에게 내조만을 강요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인간임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넘어진 페인트 통을 다시 세우는 여성들이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 아름다운 사회에서 그 절반인 여성도 아름답지 않겠는가?

〈최 진 기자〉

# 경찰의 원천봉쇄로 진통겪는 출범식

## 한총련, "기필코 성사 시키겠다"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회장=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진통을 겪고 있다. 출범식은 한양대에서 5월 30일부터 3일에 걸쳐 첫날은 전야제, 둘째날은 범청학련 결의대회와 출범식, 셋째날은 출정식 및 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전역에 배치된 1백84개 중대 2만2천여명의 경찰의 진압으로 아직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차례 한양대 진입시도

30일 오후 6시경 서남총련(의장=이지웅·중앙대 총학생회장)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30분가량 거리선전전을 하다가 8시께 종로 5가에서 서총련(의장=장전석·단국대 총학생회장) 학생들과 결합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은 8시경 종로 5가와 대학로에서부터 시작해 '대선자금공개'와 '김영삼정권 하야'를 외치며 한양대로 거리시위를 벌였고, 한양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투경찰의 진압으로 지역총련별로 흩어져 10시께 고려대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경희대 수원캠퍼스 양지영(사회과학부 1)양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뇌에 손상을 입은채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총련은 다시 지역총련별로 고려대에서 나왔고, 서남총련 학생들은 지하철을 타고 동작역으로 이동, 자정쯤 중앙대로 들어가 본교 구장주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정리집회 및 '한총련 출범식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지웅 서남총련의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문은 전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한총련 출범식을 사수하고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해 서울 천만 시민, 조국 4천만 시민과 함께 싸워나가자"고 총화발언을 했다. 결의대회는 31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오전 9시께 3천여명 가량의 부산·경남 학생들이 중앙대에 도착했다.

오후 3시경 서총련 및 각 지방에서 상경한 지역총련이 대학로에 모여, 2만여명의 학생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서울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음료수를 건네주는 등 학생들에게 힘을 주었다. 대열은 전경의 진압으로 흐트러져 서총련과 몇 개 지역총련이 본교로 몸을 피했으며, 동대입구역에서 전투경찰과 선봉대가 30여분 대치했다. 전경과 대치하던 중 본교 경상대 한 학생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같은날 오후 3시 30분경 전남 나주역에서 한총련 출범식 참석을 위해 열차에 오른 정의찬(조선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과 정송호(순천대 총학생회장) 여순총협의장이 연행되었다.

7시경 본교를 빠져나간 서남총련 및 부경총련, 제주총협 학생들은 다시 중앙대로 이동해 학교별로 정리집회를 했다. 본교 정리집회에서 원진욱 부총학생회장은 "백만학도의 대동의 장인 한총련 출범식을 아직까지 치루지 못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 선전전을 갖고 투쟁하는 것이 어떤 출범식 보다 뜻깊은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출범식을 성사시키자"고 말했다.

◇ 한총련 학생들이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선전전으 펼치고 있다.

6월 1일 오전에 서남총련은 흑석동에서 거리선전전을 갖고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오후 4시 30분. 한총련은 상왕십리에서 집회를 시도했으나 미리 배치되어 있던 전경들에 의해 실패, 지하 철로를 통해 상왕십리에서 신당역까지 이동했고 계속해서 선전전을 펼쳤다.

9시 30분경 모든 한총련 산하 지역총련이 고려대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10시 40분경 '출범식 사수와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2일 새벽 3시경까지 가졌다.

### 6월 3일 출범식 치르기로

이후 한총련은 오전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 △한총련은 경찰의 폭력탄압에도 향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함께 완강한 투쟁을 전개 해 나가겠다 △한총련 출범식은 6월 3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한양대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내일 한양대 진입투쟁을 전개한다 △한총련은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전개할 의지를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조순 서울시장님과 시 경찰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한총련은 오늘부터 출범식 성사와 관계없이 향후 '대선자금 전면공개'와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 '노동법, 안기부법 악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김영삼정권 하야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친다 △한총련은 오늘부터 긴급하게 단위학교에서 학우들을 재 조직화하고 서울로 상경시켜 과감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는 6월 7일 전국연합과 함께 국민대회를 열고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 각 단체, 성명서 발표

유례없는 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로 출범식이 진통을 겪자 여러단체에서 정부의 과잉진압을 비판하고 있다. 우선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어머니들은 "구호밖에 외치지 않는데 왜 최루탄을 쏘냐"며 전투경찰과 백골단에게 항의를 했고, 전국 연합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원천봉쇄 해제를 요구 하는 등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를 위해 전국연합 모든 민족민주운동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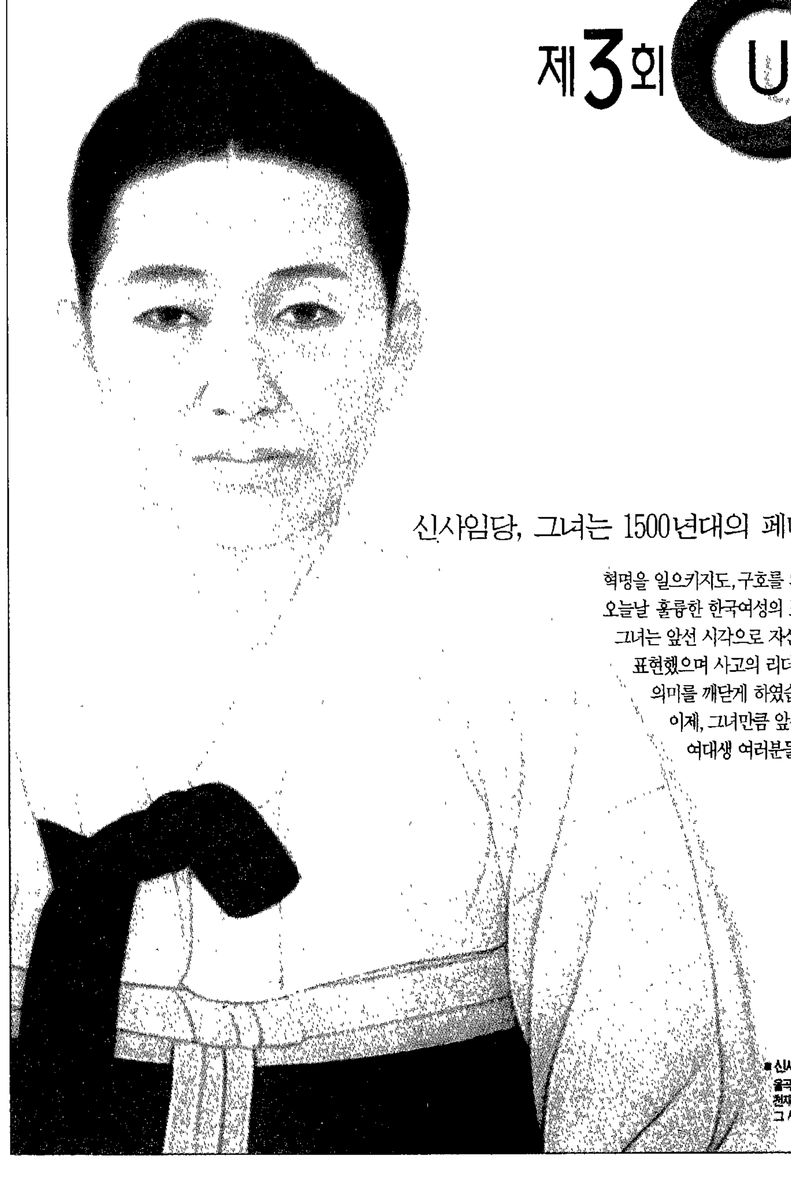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총련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 한총련은 평화적 출범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총련의 주장인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현 정권 퇴진의 요구를 지지.격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민주노총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해 전국연합과 함께 평화적인 한총련 출범식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학언론인 역시 기성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학생들의 노력은 외면하고 결과론적 보도로 상황을 왜곡하는 기성언론 선배들은 후배기자들의 애정어린 비판을 가슴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해 기성언론의 편파보도를 꼬집고 있다.

이준구(건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담화발표 이후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전국적으로 연일 확산되고 있다"며 "행사자체는 연기되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백만의 관심속에서 출범식은 내용적으로 치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기 출범식은 백만청춘의 축제의 장임과 동시에 김영삼정권에 대한 분노를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아직까지 치루지 못하고 있는 이번 출범식에 대해 한총련 한 관계자의 "한총련의 자존을 지키고, 지금 한양대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학우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기필코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열 것이다"라는 발언과 대의원 대회의 결과를 볼 때 오늘이 한총련 출범식의 고비가 될 듯 하다.

〈김용환 기자〉

제3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신사임당, 그녀는 1500년대의 페미니스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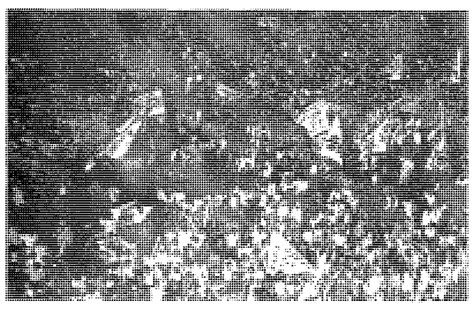
혁명을 일으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지만
오늘날 훌륭한 한국여성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신사임당-
그녀는 앞선 시각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사고의 리더로서 진정한 페미니스트의
의미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만큼 앞선 시각으로
여대생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맘껏 펼쳐보십시오.

■ 신사임당 (1504~1551 조선 인조)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자 현모양처, 효녀,
천재적 여류화가로서 역량을 발휘한 한국여인.
그 시대 최고의 만능 여성이었다.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97. 9. 1 ~ 10. 31
3. 응모주제 : 한국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
4. 응모방법
   • 분 량 : A4용지 20매 내외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2장내외 논문요약내용 별첨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97년 9월 현재)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 부착)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5. 시 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1997년 12월 13일 (토요일)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 1회이상의 컬춰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02-749-2388/02-709-5631)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태평양

■ 컬춰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앞서가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제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상황

## 본교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의 2박3일

**5월30일**

14시 30분 : 불상앞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 출정식
16시 : 학내 선전전
18시 : 강변역 서남총련 거리 선전전
20시 : 종로 5가 서총련 집회
21시 20분 : 상왕십리 한양대 집입을 위한 시위
22시 : 고려대로 서총련 및 지역총련 이동

**5월31일**

0시 30분 : 중앙대로 서남총련 이동
02시 : 서남총련 '한총련 출범식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03시 : 취침
07시 : 기상
10시 : 각 학교별 결의대회
12시 : 서남총련 결의대회
15시 : 대학로로 이동. 서총련 및 지역총련과 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참가
16시 30분 : 동대문 운동장 방향 이동
18시 40분 : 서총련 및 지역총련 동국대로 이동
21시 : 중앙대로 이동, 각 학교 정리집회

**6월1일**

02시 : 취침
07시 : 기상
10시 : 각 학교별 결의대회
12시 : 흑석동 거리 선전전
13시 : 중앙대 대학극장 서남총련 결의대회
16시 30분 : 상왕십리 한총련 한양대 진격 투쟁
17시 30분 : 신림동으로 이동
19시 : 청계천 일대 시위
22시 : 고려대 진입 한총련 출범식 사수 결의대회 개최

◇ 언론보도 진단

## 언론이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

### 편파 · 왜곡보도… 편향된 시각 버려야

언론이 또다시 '한총련 죽이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기 한총련 출범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연대항쟁에서 한총련을 마녀사냥하듯 몰아부친 언론은 이번 5기 한총련 출범식을 두고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듯 작년과 같은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지난 6월1일 오후 10시경 한양대 진입에 실패한 한총련 학생들이 고려대에서 '출범식 사수와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한총련 트럭을 잡아라'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가 있기 전 29일까지의 보도를 보면 언론은 대체로 사실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편향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주 들면서 사회면에 짤막한 단신을 시작으로 28일자 신문에는 '한총련 트럭을 잡아라'라는 제목아래 톱으로까지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출범식 준비 물품 반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한양대 외에 출범식이 예상되는 학교측의 입장을 중시하며 마치 출범식개최 자체가 폭력적인 것처럼 보도했다.

중앙일보나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등 나머지 일간지들은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출범식 관련 상황을 짤막하게나마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총련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상황을 얘기하며 그에 대한 경찰의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한총련의 입장은 이에 반박하는 정도로 싣고 있다. 또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한 부당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이적성과 불법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에 있어서도 '출범식 막을 땐 거리에서' '한총련 출범식 긴장' 등 선동적인 제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출범식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행태가 작년 연대항쟁 때와 다른점은 주로 한총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식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도 그 주위에는 항상 '이화여대 출범식 불참 선언' '호남대 총학 피습' '반 한총련 조직 탄생' 등 한총련의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화여대나 호남대 등은 한총련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크지 않음에도 유수 일간지에서는 한총련이 곧 붕괴될 조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 상업주의에 충실한 보수언론

이에 대해 김유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는 "언론은 한총련의 불법성과 이적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왜 한총련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한총련이 하는 다른 행사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상업주의에 충실한 이런 보수 언론들에 대해 불매 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현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출범식 전야제가 예정되었던 30일 이후의 한총련 관련 기사들은 이전까지의 '한총련죽이기' 방침을 더욱 노골적으로 들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31일자 일간지들은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 동향을 특화시켜 마치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듯 과장된 보도작태로 일관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남총련, 열차 강제정차'라는 제목하에 남총련학생들의 열차탑승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보도하며 열차내로 스며든 최루가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남총련의 한 학생은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다면 무척 죄송한 일이지만 많은 승객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박수와 함께 격려해주셨다. 시민들이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총련출범식 장소인 한양대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편향된 자세로 일관했다. 폐쇄된 정문을 열기 위해 토끼걸음으로 정문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했고 이런 과잉진압은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민가협 어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평화시위에의 노력과 경찰의 무자비한 과잉폭력은 보지 않고 학생들의 화염병만을 포착 폭력성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이다. 또한 한총련집회에 대한 최고의 반대이론으로 제시되는 교통불편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부연없이 단순히 결과만 확대하는 보도자세도 이전까지와 다를바 없었다.

#### 정권의 대변인 역할 이제 그만

작년 8월 한총련에 융단폭격에 가까운 맹공을 퍼부운 보수언론들은 올 한총련 출범식을 두고도 그냥 지나칠 태세가 아니다. 전야제가 있던 30일 오후동안 비폭력 시위로 전경들에 대항한 한양대생들의 모습을 단 한줄도 싣지 않은 언론을 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언제까지 언론은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라도 언론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회부〉

##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

### "예전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이다"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경찰의 삼엄한 통제를 뚫고 30일 부산에서 상경한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이무진(인제대 · 가명)군을 중앙대에서 만났다.

-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텐데, 그 경로는.
= 택시를 나눠 타 진영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평택까지 왔다. 평택에서 시외버스로 오산까지, 다시 성남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왔다. 성남에서 전경과 대치하던 중 16명이 연행되었지만 다행히 오늘(1일) 모두 풀려났다

-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 같은가.
= 부산에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가 우리들에게 "왜 학생들은 데모를 안하나?"고 말할 정도로 예전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인 것 같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영삼 정권의 현실이다.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5 · 18사면, 한보비리등 많은 사건들로 하여금 현 정권은 민심을 잃은 것이다.

- 출범식을 아직 못치르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 무슨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이번 출범식을 5기 한총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꼭 성사시켜야 한다.

### "국민의 호응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

대학로에서 학생들의 집회장면을 보던 이상혁(63세 · 역술가)씨를 만났다.

- 정부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것에 대한 생각은.
= 정부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평화적 출범식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지금 열리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견해는.
= 4 · 19는 학생 운동이 부패 정권을 바꾼 예이다. 지금의 학생운동은 그 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 같다.

- 만약 자녀가 데모를 한다면.
=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면 말리지 않겠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4천만 국민이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학생들의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별 취재반
김기영 편집장 유철주 기자
김용환 기자 김미경 기자
오인택 기자 조은순 기자
최 진 기자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 SK Telecom

"김영우 선생님의 책임감"

● 경북 봉화군 상운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 김영우 선생님

Mobile & Multimedia
M&M은 Mobile & Multimedia의 약자로 정보화사회의 핵심인 무선통신과 멀티미디어 분야를 의미합니다.

아마추어 무선(HAM)을 이용, 오지에서도 활용가능한
무선데이터통신 방법을 고안해 제1회 M&M 논문대상을 수상한 김영우 선생님
(당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재학). 태백산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정보통신의 혜택을 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책임질 SK텔레콤이 이제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넓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두번째 M&M 논문을 기다립니다.

제2회 M&M 논문대상 공모

1. 응모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2. 논문주제(아래 주제중 택일)
■ 멀티미디어 기반구조로서 이동통신의 발전 방안
■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Marketing 전략
■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Multimedia 서비스 구현 방안
■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3. 논문분량
■ 본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A4 Size 20매 내외)
■ 요약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 Size 3매 내외)
4. 시상내역

| 등위 | 인원 | | 상금 | 부상 |
|---|---|---|---|---|
| | 대학생 | 대학원생 | | |
| 대상 | 1 | | 1,000만원 | 상패, 해외통신업계 견학, 기념품 |
| 금상 | 1 | 1 | 각 500만원 | |
| 은상 | 2 | 2 | 각 300만원 | |
| 동상 | 5 | 5 | 각 200만원 | 상패, 기념품 |
| 장려상 | 10 | 10 | 각 100만원 | |

5. 논문작성비 지원
■ 단체접수 : 편당 10만원 ■ 개인접수 : 편당 5만원
6. 심사
■ 1차 : 서면심사
■ 2차 : 논문발표 심사(단 1차 통과자에 한함)
7. 접수기간
1997년 8월 18일 ~ 8월 22일
8. 논문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 (100-095)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텔레콤 홍보실 M&M논문대상 담당자
■ 전화 : (02)3709 - 1966 ~ 8
※ 우편 접수도 가능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9. 기타
■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응모논문은 창작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 단체접수시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공문 제출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SK텔레콤 소유임

주 최 : SK Telecom · 東亞日報社
후 원 : 정보통신부

SK Telecom

### ◇ 본사 주최 제35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결과

◇ 입선자

**시 -'항아리'**
장 원 : 이영환 (창원고등학교·2)
우수1석 : 윤미경 (이화여자고등학교·1)
우수2석 : 김은정 (광촌고등학교·2)
가작1석 : 유선빈 (안양예술고등학교·3)
가작2석 : 최규혜 (혜화여자고등학교·3)
가작3석 : 김혜나 (중흥고등학교·3)

**소설 -'눈빛'**
우수1석 : 곽승경 (안양예술고등학교·3)
우수2석 : 배희정 (창원고등학교·3)
가작1석 : 정지은 (안양예술고등학교·3)
가작2석 : 김광주 (화이여자고등학교·2)

**수필 -'섬'**
장 원 : 황인섭 (동국대 부속고등학교·3)
우수1석 : 조정아 (관신고등학교·2)
우수2석 : 최하나 (관촌고등학교·2)
가작1석 : 이지혜 (안양예술고등학교·2)
가작2석 : 김혜영 (정의여자고등학교·2)
가작3석 : 신숙준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2)

◇ 심사위원

시 : 신경림 (본교 석좌교수·시인)
최은영 (사범대 국어교육·시인)
소설 : 한용환 (사범대 국어교육·소설가)
김동윤 (법인사무처 사업부장·소설가)
수필 : 김선학 (인문대 국어국문학·문학평론가)
정태섭 (사범대 역사교육·본사주간)

## 심사평

### 시

### 동화적인 발상 · 재치있는 언어

주어진 시제를 단순 소박하게 풀이하려고만 하다보니, 진작에 자기가 세계를 읽어나는 예각적인 시고의 힘을 펼기지 못한 바에는 그럴싸한 언어 나열에 머물고 만다. 대사를 통해 무엇 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흔적이 그렇게 배여 있지를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시적 전개와 무리하지 않은 언어 선택 등 일정 수준에 다 닿고 있었다. 임팩한 묘상으로 허황된 자의성의 틀을이 없는 반면, 대체로 소품적인 호흡을 보였다.

그중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와 독소리를 가다듬은 탓일 작품을 골랐다. 과장되지 않으나 참신한 시각과 동화적인 발상, 재치있는 언어 구사 등이 돋보이는 이영환(창원고·2)의 '항아리'를 첫머리에 올린기로 했다. 선에 든 시편이나 그렇지 못해 아쉬운 시람도 한결같이 시를 사랑하고 쓰는 마음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신 경 림 (본교 석좌교수·시인)
최 은 영 (사범대 국어교육·시인)

### 소설

### 자연스런 글전개 · 주제의식 나타나야

'눈빛' 이란 제목을 다루기가 그리 만만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목에서 암지로 이야기를 만들어 붙인 느낌은 지루하고 권태롭다. 소설은 있을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어른 아픔이나 갈등을 새삼 일깨워주는 문학이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작위적이라면 공감하기 전에 싫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런대로 우수석에 오른 안양예고 곽승경양의 작품은 액자소설의 기법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통해 새삼스럽게 일깨워 받의 눈빛(인식)과 그런 받을 둔 가난한 아버지의 말에 대한 눈빛(부정오해)의 무리없이 나타나있지만 주제의식이 박약한 흠으로 장원에는 오르지 못했고, 우수2석의 정원고등학교 배희정양의 작품은 교통사고로 때문에 생긴 불행속에서도 자매의 인정이 아주 따뜻하게 그려진 점이 호감이 갔다. 그밖에 가작으로 오른 정지은 (안양예고), 김광주(화이여고) 두작품의 작품은 구성력이나 문장이 그런대로 소설에 올 가능성이 엿보여 선에 넣은 바있다. 두것보다 문장력을 기르는데 빠를 지름은 노력을 더해주기 바란다.

한 용 환 (소설가·사범대 국어교육)
김 동 윤 (소설가·법인사무처 사업부장)

### 수필

### 발상의 참신함 · 정확한 문장 · 생각의 깊이에 중점

편안한 마음으로 쓰는 글이 수필이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좋은 수필을 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몸모작을 첫 백 발상의 참신함, 불행 정확한 문장, 셋째 생각의 깊이에다 중점을 두고 선발하았다.

황인섭(동대부고)의 작품은 그늘진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산다고 바라본 시각이 참신하고 놀랍다. 조정아(관신고)의 작품은 아버지의 모습을 섬과 연결시키면서 짙은 사회성까지 자아내는 문장이 돋보였다. 장원작품과 그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자신의 일을 지나치게 표백한 것이 흠으로 지적되었다. 최하나(관촌고), 이지혜(안양예고), 김혜영(정의여고), 신숙준(계산여고)의 작품도 깊으면 깊을수록 진진한 감동의 파문을 가슴에 일게 해 준다.

김 선 학 (인문대 국어국문학·문학평론가)
정 태 섭 (사범대 역사교육·본사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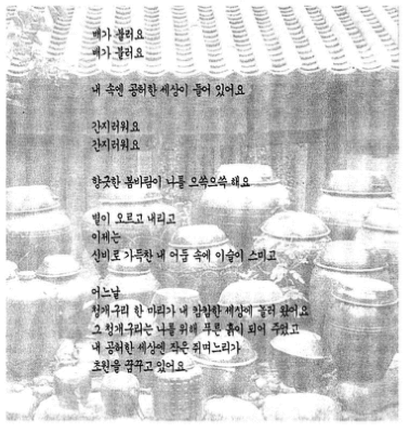
개교 91주년 기념 · 본지 창간 47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 만해를 꿈꾸며 젊음의 순수를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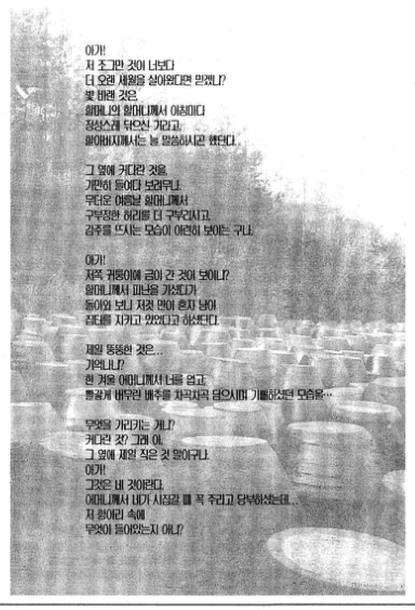
## 시 장원-항아리

이 영 환
(창원고·2)




### 우수1석-항아리

윤 미 경
(이화여고·1)




## 소설 우수1석-눈빛

### 딸애의 눈빛에서 떠 오른 먼 기억속 여자아이를 회상하며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침을 뱉었던 내 모습과 아이의 눈빛 그 눈빛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읍내에 갈 수 없었다. 바나나는 완전히 썩어버렸다"**

곽 승 경
(안양예고·3)

8시 40분

9회말 현재 영대영 팀팀한 투수 전이었다. 한참 재미있게 보던 야구 중계에서 눈을 뗄 수 박에 없었다. 지금 나가야만 말해를 제시간에 도서실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입맛을 다시며 지리에서 일어섰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리모콘을 집어 들었다. 부엌에서 아내가 준비해 온 도시락을 들고 나오자 채널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TV속의 여자 주인공은 울고 있었다.

"얼른 가요. 기지배, 또 성질 부리면 어떡하려고." 아내는 채널을 바꿔 버린 것이 미안한지 한마디 했다.

"갔다 올께"

아내는 벌써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손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느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열쇠를 집어들고 박으로 나왔다. 캄캄같은 바람이 옷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마치 어제 발아이의 눈빛처럼 찼다. 이해 직업을 조사했다면 학교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이해를 말하기가 참피했다면서 말아이는 불평을 했다. 다음부터는 학교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기다리지 말라는 말아이의 눈빛은 불고있는 바람처럼 싸늘했다. 유난히 더 초라해 보이는 트럭 문을 열기가 망설여졌다. 부엌저 내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다. 재치있는 아내가 짜놓아 말아이가 맞추어 놓은 채널에서 스무살 남짓한 목소리의 남자가 관자를 읽고 있었다. 아무 중계를 하는 곳이 있나 싶어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아무 중계는 벌써 끝이 났는지 나오지 않았다.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음악을 피해 채널을 돌리다 보니 뉴스가 흘러나왔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등, 교육비 문제가 어떻다는 등,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노란불이 깜빡거리다가 신호가 바뀌었다. 앞 차선을 지나친 차는, 차 꽁무니를 보이며 서둘러 흰긴 보도를 지나갔다.

"나중 소식입니다. 오늘 낮 2시경 서울 상계동 '건강 혹한소' 집에서 백사 항아리 뚜껑이 열려 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오늘 우리집에 올 수 있나?"

흰 실내화가 눈에 들어왔다.

"모른다"

나는 구멍난 양말 틈새로 죽 삐져나온 왼쪽 발가락을 오른발로 덮을 가렸다.

"왜? 그러지 말고 나도 가자."

"나는 아들은 다 신물 갔고 오는데, 내만 어떻게 그냥 가나?"

"사내 자식이 가스나 꼬무나나 따라 댕기나?"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내 머리를 쥐어 박았다. 눈물이 났다. 소희 생일에 꼭 가고 싶었다.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반 아이들은 소희네 집에 간다며 법석을 떨었다.

"야! 너 와 참소 안하는데?"

"미, 미안해. 하, 하면 되잖아."

명하게 서있는 진철이에게 화풀이를 했다. 좀 모자라는 진철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허둥지둥 했다. 진철이는 소희에게 준다며 꼬질꼬질한 신문지로 둘둘말은 공책 두권을 꺼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었다. 저런 멍청한 자식도 선물을 가지고 소희네 집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내 처지에 화가 났다. 반 아이들에게 물러서인 소희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뒷머리를 바싹 치켜 잘라 목덜미가 푸르스름한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면 소희는 참 예뻤다. 하얀피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싸늘하게 하나로 묶거나 말고 다녔다. 쌍꺼풀도 없고, 크지도 않은 눈이지만 그 아이의 눈은 참 예뻤다. 작아도 내 눈에는...

"참호야 니 학교 안가나?"

어젯밤 심통이 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쓰고 누웠는데 그때문 밖이 들었었나 보다.

"일어났심미?"

대충 물만 묻혀 세수를 했다. 갈은지 오래되서인지 안그래도 짧은 머리가 원쪽으로 붙어 있었다. 가방을 챙겨놓고 머리를 털며 학교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니 짝 진철이가 벌써 와 있었다.

"어제, 소, 소희네서 어, 억수로 많이 먹었다 이이가."

눈치 없는 녀석은 난생 처음으로 케익을 먹어 봤다는 등, 소희네 집이 어떻다는 등 마음거리며 자랑을 했다. 기분이 다시 엉망이 되었다.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밖고 담겨가며 교실을 빠져 나갔다. 운동장 한끄에 있는 축구공을 서로 발질하며 어디아갔다. 나는 교실 갈으면 나도 그랬을 터였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시무룩해져 교실을 나서는 나를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참호, 무슨 고민있나?"

선생님은 내 두 손을 꼭 쥐었다. 때가 낀 손톱이 부끄러웠다.

"아니이다"

나는 손을 빼내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구나. 좀 웃어 이지."

"어, 그런데 와 부르셨어예?"

"응, 다른게 아니라 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음악이 좀 부족하지?"

참피해서 슬프만 싶었다. 저번 가창 시험때, 박자를 다 틀려가며 노래를 불러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말인데, 텐버린으로 박자를 맞추거나 하는것. 소희한테 배워보면 어떨까? 소희 그런 것 잘하니까 말이야"

"네, 텐버린예?"

"텐버린. 왜 있잖아. 저번에 소희가 들고 나와 했던거."

나는 슬픔 소희 자리를 쳐다 보았다. 소희는 아직 교실에 남아있었다. 정리했다. 텐버린도 모른다고 하다니, 빨개진 얼굴과 귀를 소희가 볼까봐 고개를 푹 숙였다. 내일부터 남아서 연습을 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박으로 나왔다. 소희도 함께였다. 시간이 꽤 지났는지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옆에서 소희가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을 꼭 감고 달리고 싶었다. 지저분한 내 머리가 창피했다.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너 어디로 가노?"

또랑또랑한 서울말이다. 아이의 눈은 웃고 있었다. 큰길로 가면 읍내고, 샛길로 가면 우리집이다. 나는 턱으로 큰 길을 가리켰다. 소희의 집이 읍내 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함께 걸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읍내에서 제일 큰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그 가게는 엄마가, 또 동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었다. 개를 잡고, 염소에 뱀을 잡아 판다는 집. 나는 그런것 보다도 코를 '씨아'하고 찌르는 그 냄새가 싫어 그 앞을 다나기 싫어졌다.

"니, 여기서 뭐 하는지 아나?"

소희는 대답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울 엄마가 그라는데 이집 아주 몬쓰다카더라, 개를 쳐 죽이고 염소 새끼이도 잡는다 안카나. 또 비암도 있다."

나는 그렇게 떠들고는

돌아는 6월 항쟁이 있은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10년전 그날의 투쟁과 환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우리를 생각해 본다.

(편집자)

◇ 6월 항쟁의 시작, 전개, 그리고 끝

# 유린당한 인간 존엄성 · 되찾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 명동성당 시위, 항쟁의 도화선…6 · 29선언으로 이어져

◇ 87년 6월 26일. 서울역주변에서 학생 · 시민들이 전경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정당 대통령후보로 노태우 대표가 선출된 지명대회가, 성공회 성당안에서는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 철폐'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6 · 10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원천봉쇄했으며, 이 날 학생들은 오후 1시경 '파쇼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를 외치며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과 국도극장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등 거리시위는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밤이 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이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주요도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로 발전하게 됐다.

거리에서 쫓겨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8백여명은 계획에 없던 일이라 오후 11시경 해산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가 없다고 판단,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최루탄을 쏘며 성당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했고 서울대, 경희대 등 일부대학 학생들이 명동성당 농성학우 구출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 투쟁이 5박6일간 계속되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6 · 29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20여일간 계속해 전국 34개 시와 4개 군 이상의 지역에서 시위와 집회가 열렸으며 이는 연인원 4-5백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민주항쟁이었다.

이렇듯 각계 각층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조속히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6 · 29선언을 발표했다. 이를두고 다수의 야당인사와 재야의 원로들은 "정권의 항복선언이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야의 젊은 실무자들은 "6 · 29선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양 김씨만 분열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6 · 29선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6 · 29선언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야당의 분열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던 지배세력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민간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며 양 김씨의 보수야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심한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크게 보면 6 · 29선언은 분명 국민이 투쟁하여 얻은 전리품이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민주세력이 지배세력으로부터 얻어낸 최초의 승리로 평가된다.

6월 항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된 군사독재하에서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철저히 유린당한 언론 · 출판 · 결사 ·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바램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기제를 통해 폭발되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투쟁의 관건이었으며, 민주화투쟁은 누구나 수용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대의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 저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운동은 1월 14일 박종철 고문살인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항의와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상황에서 4 · 13호헌조치가 발표되자 가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어,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군사독재 종식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6월 항쟁은 청년학생들이 선두에 나섰지만 사무전문직, 생산직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영세업자, 여성, 종교인 등 어느 특정계급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고 한국 민중 모두가 그 주체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반외세 · 자주화 투쟁으로 발전하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은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각 부문 운동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되어 대중조직의 강화, 대중투쟁의 고양이라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심미선 기자〉

◇ 6월 항쟁 취재기

# "불발 최루탄이 쓰레기처럼 나뒹굴었다"

## 공권력 폭압속 1백만 군중모여 '민주화' 한 목소리

87년 6월10일. 그 날은 해방이후 우리 근대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다.

6월 항쟁은 4 · 19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물론, 80년 이후 군부독재에 맞선 민중의 가장 큰 투쟁사인 것이다. 이는 87년이전부터 결집되어온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산물이기도 하지만 대투쟁이 있기까지는 크게 몇몇의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 13호헌조치 이전 박종철군의 고문살인 은폐 사건이 있었고 이후 5월 광주항쟁 계승투쟁이 있었다. 특히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6월의 범민주연대세력의 민주화 투쟁은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6 · 29선언의 의의에 대해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편의상 노태우씨가 한국의 차기 권력에 대한 정권유지차원의 기만선언으로, 또한 민주화를 갈망했던 민중들에 대한 항복의 의미로 보고싶다.

따라서 6 · 10항쟁보다는 6월 항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87년 3월이후부터 6월 29일까지의 취재기를 요약한다는 것은 그날의 투쟁을 과소평가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마저도 든다.

6월 항쟁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6월 10일부터부터 6월 26일까지로 기억된다. 해방이후 사상 최대인 수십만의 민중이 20여일 가까이 투쟁에 가담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한국역사를 위해서라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6월 10일 당시의 투쟁은 일부 지역중심의 운동이 아닌 범국민적이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조직적인 의식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국 34개시와 4개군에서 총 1백40만(당시 운동본부 집계)이 참여한 이 시위는 당시 정권의 4 · 13호헌철폐는 물론,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씨의 사면 및 복권,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당시 정권에서는 군부개입을 고려했을 만큼 일종의 백기를 든 셈이다.

△ 6월 10일-민정당은 노태우씨를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하자 전국 22개시에서는 '박종철군 고문 · 살인 · 은폐조작 규탄대회 및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군부독재 항쟁에 나섰다. 6월 10일 당시는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강인데도 지방학생들 상당수가 귀향을 포기한 채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 이른바 3로(路) 투쟁지역으로 불리는 가두에서 투쟁에 나섰다. 이날 투쟁에 맞서 독재정권은 2백 20명을 구속하는 한편, 국민운동 핵심간부를 소환하기도 했다 △6월 18일 - 오후 6시를 기해 모든 자동차의 경적을 일제히 울린데 이어 오후 10시에는 전국민이 10분간 소등하는 투쟁도 이어졌다. △6월 26일 - 이날은 전국 2백70개지역에서 국민평화대행진이 개최돼 1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다음날 박종철군 고문사범인 담당경찰관 5명은 징역을 구형 받기도 했다. △6월 30일 - 시위관련, 제적 및 휴직 당했던 많은 학생 및 교사들이 복직 · 복학되는 등 이후부터 복학의 바람이 몇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원 23일째에 달하더 이한열군이 7월 1일을 고비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결국, 이한열군은 최루탄에 맞고 실신한지 27일만인 7월 5일 사망했고 이군의 사망은 이후 범민주화투쟁에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이한열군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진 7월 9일이다.

연세대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장례행렬에 모인 시민 및 학생수가 1백만명에 달했으며 모든 교통수단 운행이 중단된 채 도보로 시청앞 분수대까지 걸어와 추모식을 갖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11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 무작정 쳐들어가 열린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어 특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특종에 대한 기쁨보다는 1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 한소리로 외치던 민주화의 함성이 더 쟁쟁하다.

당시 불발 최루탄은 쓰레기처럼 쌓였고 기자들의 인권은 휴지처럼 나뒹굴었다. 또한 곳곳에서 최루탄 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학생들의 모습은 흔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신발과 가방이 군데 군데 널려있기도 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애국가를 부르며 반군부독재투쟁 대열에 합류하던 샐러리맨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택시기사, 시장상인, 심지어 몇몇 경찰들 조차 적극적인 가담은 못했지만 말없는 지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처절히 유린되던 민주시위대의 인권은 당시 군사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정신없이 백골단에 쫓겨 신발을 신은 채 미장원 안방으로 피해야했던 그 날의 취재기는 전장의 터가 다름아니었다. 무단 침입자들에게 음료수를 주며 격려해주던 미장원 아주머니의 고마움도 그 날의 큰 힘이었다.

지 희 현

〈해사프레스 취재부차장 · 당시 본사기자〉

인터뷰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중배(63)씨를 만나

# '6월 항쟁은 필요하다'

-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 위원회의 결성 동기와 사업 진행 방향 및 기간은

= 작년 민주연대 단체들이 모여 사업을 계획했으며 사업 진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 이다.

우선 단순히 기념사업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6월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에 다시 그 의미를 살려내려는 목적으로 학술토론회, 6월 항쟁의 주인 찾기 운동, 6월 대동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87년 6월항쟁 이후 10년이 지났다. 정치 ·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촉매역할을 했다. 전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함에 따라 6 · 29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이로써 사람들은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래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악과 같은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 문민정권 수립 4년 후 민주화 발전상을 되짚어 본다면

= 현재 박정희신드롬이 일고 있는 걸로 안다. 박정희정권은 독재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한 정권이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국가사회의 구심을 이루고 명확한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문민정부의 김영삼정권은 어느 것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보비리, 김현철씨 구속 사건, 대선자금 비공개 등을 볼 때 민주화의 폭을 넓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조시킨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민주화 운동에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점에 있어서는 40년을 기자생활로 보낸 내가 더 부끄럽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의한 폭압에 못이겨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은 자발적으로 지배체제를 강화하며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 민중전체, 국민전체를 위한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사의 안위를 위한 방종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다.

- 과거 역사를 보면 민주화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학생들 이었다. 근래들어 학생운동의 퇴조기라는 시각이 분분한데 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 · 19와 3 · 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정부의 원천봉쇄 속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루고나서 많은 탄압을 받았으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운동 최대의 강점은 청년다운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권의 개입없이 민주주의를 바라는 학생들이 초지일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또한 너무 전략적이지 않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최진 기자〉


## 사회 봉사단원 모집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 이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동국참사람 봉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2. 기 간 : 1997. 6 2일부터
3. 접수처 : 학생처 장학과 ( 문의 전화 . 260 - 3050, 3051 )
4. 봉사기간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 겨울방학 ( 별도신청 )
5. 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 (1학점)을 부여하며, 취업 · 진학을 위한 사회 봉사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여름방학 사회 봉사활동 신청서를 접수 중입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동 국 참 사 람 봉 사 단 장

## 창업(벤처기업 포함) 특강 안내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요즈음 다양한 미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직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심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특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및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1 특강일시 . 1997. 6. 3(화) 오후 3시 - 5시
2 장 소 : 동국관 L501 강의실
3. 참석범위 : 재학생 및 관심있는 전 동국인
4. 강 사 : 박 춘 엽 교수(정보산업학부)

학 생 처 장

## 낙산학사 개장 안내

1. 개장기간: 95 7 1(화) - 8 18(월)

2. 시설현황:

| 구 분 | 서울캠퍼스 | 경주캠퍼스 |
|---|---|---|
| 교직원실(1실 5명) | 11실 | 3실 |
| 학생실 (1실 20명) | 7실 | 3실 |

3. 신청서 접수내용

| 구 분 | 접수처 | 접수기간 | 실배정방법 | 사용관리비 |
|---|---|---|---|---|
| 교직원실 | 관재과 | '97 6. 17 -6. 19 | 접수순으로 배정함 | 3박4일.30,000 |
| 학 생 실 | 학생과 | | | 1인1박.1,500 |

4. 일정표

| | | | | | | | |
|---|---|---|---|---|---|---|---|
| 1회 | 7 1 - 4 | 2회 | 7. 4 - 7 | 3회 | 7. 7 - 10 | 4회 | 7 10 - 13 |
| 5회 | 7. 13 - 16 | 6회 | 7 16 - 19 | 7회 | 7 19 - 22 | 8회 | 7 22 - 25 |
| 9회 | 7 25 - 28 | 10회 | 7 28 - 31 | 11회 | 7.31 - 8.3 | 12회 | 8. 3 - 6 |
| 13회 | 8. 6 - 9 | 14회 | 8 9 - 12 | 15회 | 8. 12 - 15 | 16회 | 8. 15 - 18 |

5.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직계가족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
나 실 배정은 사용신청서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하지 않음
다 사용신청은 재학생의 경우 10인 이상의 단체로 한함
라 교직원실의 사용관리비는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고, 재학생의 경우 신청시 1만 5천원의 접수비를 납부하여야 함.
마. 취사도구는 개인별 지참 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재과(260-3081)이나 학생과(260-3047)로 문의

##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공고

아래와 같이 97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일 시: 97. 6 28(토) 9:00 - 12:00
2. 장 소: 시험당시 계산소시학사 게시판에 공고
3. 대 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
4. 원서접수 기간: 97 6.18(수) - 6.27(금) (8일간, 단 토 · 일 제외)
5. 접수처: 계산고시학사 사감실(2층)
6. 선발인원: 60명(선발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각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이상인 자로서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직전(直前) 학기 17학점 이상 취득자

7. 시험과목

| | | |
|---|---|---|
| 행정고시 | 전학년 | 영어, 헌법, 국사 |
| 외무고시 | 전학년 | 영어, 헌법, 국사 |
| 사법시험 | 1 학년 | 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
| | 2 학년 | 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형법 |
| | 3 · 4학년 | 외국어, 헌법, 민법, 형법 |

※ 사법시험 외국어 영어,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중 택일

8 원서 접수시 학생증(신분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할 것.

※ 복학예정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휴학 전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아 등록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9. 고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필히 해당고시에 응시하여야 함.

동국대학교 고시지도 위원회

## 97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 강연회

- 21세기 한국 사회를 위한 비전 -

초청강연회)
○ 사회 · 경제 부문 : 이한구 (대우 경제소 소장)
주제 : "새 시대의 경제 정책"
일시 : 6월 2일 15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
○ 정치 · 통일 부문 :이부영 (국회의원)
주제 : "오늘의 난국과 한국정치의 과제"
일시 : 6월 3일 15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
○ 문학 부문 :조정래 (소설가)
주제 "민족문학과 역사"
일시 : 6월 4일 14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
○ 문화 · 예술 부문
김응수 (영화 감독)
주제 : "사회과학과 명화"
일시 : 6월 5일 16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

*영화장면 :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오후 2시 제 3세미나실)
심광현 (미술평론가)
주제 : "테크노 문화와 이미지의 문화 정치"
일시 : 6월 9일 17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

단편 기획 영화제)
"세상을 발로 차서 거꾸로 엎기"
○ 6월 2일
"가변차선(24분)" "백색인(18분)" "지하생활자(15분)"
○ 6월 3일
"나마스테 서울(18분)" "백일몽(20분)" "카드이야기(18분)"
○ 6월 4일
"슬픈 열대(24분)" "먹이(26분)" "안개(15분)"

△ 시간 : 오후 8시부터
△ 장소 : 대학원 학술문화관 광장 (야외상영)

동국대학교 대학원 제 13대 총학생회

◇ 이과대 소모임 Sciver팀의 Inter Brain BBS

# 학내 새로운 정보연결체로 성장

## 서버용량·시설 아직 미비… 학교 지원 시급

Inter Brain BBS에 대해서 아십니까?

작년부터 이과대 물리학과 소모임인 Sciver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하고 있는 통신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보다 가입자가 많이 늘어 이제는 1천 5백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학내에서 가장 큰 통신동호회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반의 호스트 문제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버의 업그레이드로 회원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자료제공 측면이 아직 부족한 점으로 남아 있지만 장기적인 학교의 투자가 있다면 이도 차츰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과의 동호회 방이 만들어져 학과 단위의 친목을 나눌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유로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눌수 있으며 친구를 사귈 수 도 있다. 또한 이과대의 교수 가운데는 BBS의 활용화를 위해 감상문과 보고서를 BBS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 메일로 받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는 BBS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ID발급 방법

우선 BBS를 사용하려면 아이디(ID)가 있어야 하겠다.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BS 접속후 손님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란에 ibrain이라고 친 후 엔터를 누른다. 이후 초기메뉴인 9번란에서 등록 절차를 받으면 되며 이때의 주의사항은 숫자로 입력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문자판 하에서 입력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컴퓨터가 숫자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입신청을 하면 시삽(System Operater의 준말)의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 메뉴란

일단 아이디를 발급을 받았다면 BBS 안에 포함된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준비가 된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 보다 메뉴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삽이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전자우편을 통한 메일교환이 가능하다. 이 전자우편 메뉴를 통해 보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게시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이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횡설수설란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이방에는 유머란과 각 메뉴(인문사회·자연과학 등)에 맞는 글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나눌수 있는 대화방과 BBS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둔 자료실이 있으며 개인정보란은 자신이 작성한 신상정보를 바꾸는 곳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이 있으며 동호회와 포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는 도서검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본교 도서관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굳이 가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신규회원등록을 하는 메뉴가 있으며 BBS의 특징인 하이텔과 천리안 및 기타 BBS와의 접속이 가능하다. 학교 LAN(근거리통신망)의 속도가 느려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대를 잘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외부 접속 방법

Inter Brain BBS의 접속은 학내 실습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다.

하이텔 등과 같이 전화선을 이용해 들어올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260-3986이다. 이 방법은 혜화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아이디는 ibrain이며 비밀번호는 ibrain12이다.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번호는 260-3731~4번이 있다. 이때는 선택적으로 서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주소를 sciver2.dongguk.ac.kr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용 BBS를 통한 접속이다. 이때는 soback 같은 것에 가입이 되어있을시에 telnet 203.253.134.212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 장기적 투자 필요

이렇게 BBS의 사용법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아직 속도·메뉴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메뉴는 관리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속도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서버교체는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Inter Brain BBS 시삽인 임창현(물리 4)군은 이와 관련해 "메뉴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동국장터' 등과 같은 알뜰 장터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sever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server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학교측의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보화 시대에 지금부터라도 본교 BBS에 관심을 가져 활용화 시키고 수업에 이용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이태훈 기자〉

◇ 통신망 속의 '동대방' -본교통신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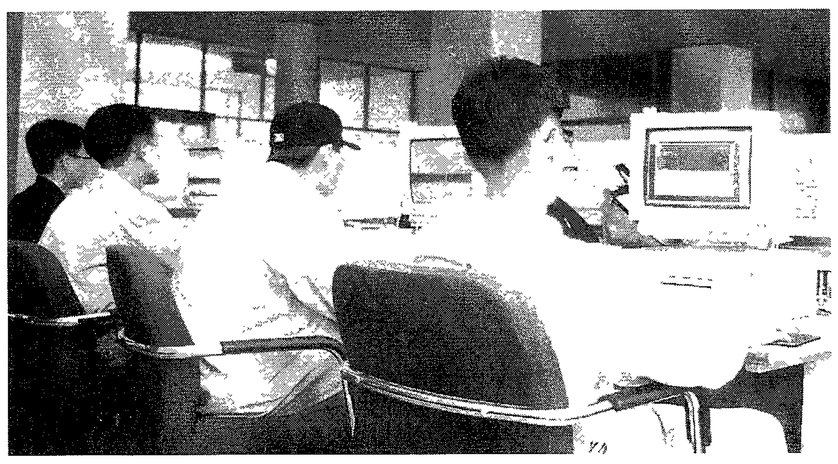
# '동대의 색깔을 느낄수 있는 곳'

## 열린 정보 … 이용자의 많은 참여와 관심 필요

'나는 하루라도 통신에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통신' 이런 말들은 요즘 부각되고 있는 '통신중독증'의 현상들이다. 80년대엔 생소했던 그러나 90년대엔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통신문화는 이미 이렇게 우리들 생활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BBS를 통한 채팅이나 자료 다운받기 등은 예사이고 인터넷까지 제공되고 있는 통신망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귀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도 하며 학교내에서는 공강시간에 도서관이나 컴퓨터가 설치된 실습실에 가 소일할 수 있는 제공꺼리이다. 이런 통신문화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칫 개인주의로의 심화가 우려되는 현상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용자수도 나날이 늘고 있다. 본교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대부분 통신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천리안 등 다양한 통신회사에 연결해 이용하고 있다.

이런 통신의 활성화에는 동호회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취미나 일을 가지고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통신활용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이텔·유니텔 등의 4개 통신회사에도 본교의 동대방이라는 동호회가 존재한다. 과연 이런 학교 동호회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있고 어떤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그 위상은 어떠한가.



대개 동대방이라 불리는 본교 통신동호회들은 go dgu하면 들어갈 수 있다. 기초적으로 가입인사 및 공지사항들이 존재하고 가입하면 손님자격이 아닌 정식이용자로 동호회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 서울캠의 목멱골 소식, 경주캠의 온방골 소식 등의 메뉴를 구비하고 있어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들의 방들도 개설돼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내 홍보나 의견수렴,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각 통신망의 동호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벼룩시장, 코끼리시장, 보물창고 등의 이름을 가진 물물장터, 그리고 회원들이 자주 들른다는 대화실 및 토론실, 나우누리의 낙서장이나 무기명으로 표시된다는 천리안의 정각원, 그리고 삶의 진솔한 이야기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져 있다. 자신의 글솜씨를 뽐낼 수 있는 문화산책, 신춘문예, 웃어봅시다, 주저리로 구성되어 있는 유니텔의 작은문단 등도 통신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대생들의 이야기이며 참여의 장인 것이다.

이런 본교 동호회의 성격에 대해 천리안 동대방 동호회의 시삽인 이준규(ID ZSDGU·독문3)군은 "동국대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학생, 교직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다"며 "일단 친목도모의 목적이 가장크고 동국대만의 색깔을 지닐 수 있는 장소"라고 평가한다. 또한 동국대라는 특성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정보가 많고, 가령 총학관련 글이 올라온다든지 생협에서 보리수 공사에 관한 공지 등이 올라온다"고 말한다.

동대방이라는 각 통신동호회는 94년도 초에 만들어졌다. 천리안을 시작으로 하이텔, 나우누리 그리고 올해 생긴 유니텔의 동대방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각 동대방들은 회원들을 주축으로 정기모임 등을 개설하고 M·T나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다. 나우누리의 동대방인 '백상'의 정기모임도 지난 5월31일 이루어졌으며 공지사항을 통해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천리안의 경우엔 '번개모임'이라는 것이 있어 회원들끼리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서로 연락해 신변잡기부터 시작해 동호회에 관한 토론, 인생상담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각 동대방에 개설된 메뉴들이 모두 활성된 것은 아니다. 하이텔이나 나우누리를 제외하고는 아직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교내 언론기관 등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정보는 교류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표방하는 뜻은 바로 PC통신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진지한 대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그런 장소. 바로 그 공간에 선 학교의 동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다 나은 정보와 학생들의 지각있는 참여, 거기에 운영자들의 노력이 첨가될 때 본교내에서 '동대방'이라는 통신동호회들이 진정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식 기자〉

# "전자계산소로 오세요 인터넷아이디 무료 발급 해드립니다."

## 전자우편·학외 접속시 유용

작년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이 완료되어 각 건물과 실습실에 통신망 연결이 언제나 접속 가능하다.

도서관이나 컴퓨터 실습실에 접속된 LAN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학내 이용만 가능하다고 아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현재 혜화관 1층에 있는 전자계산소 상담실에서는 학부생들에게 인터넷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인터넷 ID를 발급받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1천 6백명이며 ID 발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방중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다.

아이디는 학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는 별 문제없이 로그인(login)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가 별 필요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e-mail을 사용하는 경우나 학외에서 사용할 경우 아이디가 있어야 본교 호스트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외부에서 전화번호 260-3731-5번과 8925, 8936번 2대의 전화선을 통해 '이야기' 통신 등을 이용한 통신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본교 호스트에 접속, 서버를 선택한후 로그인 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흔히 쓰고있는 연결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Future TCP/IP 3.5를 이용한 호스트 접속은 우선 도스상에 흔히 접속시 사용하는 방법 c:〉 vte Host IP Address/Host Nametlr이다. 그러므로 학교서버에 접속시에는 c:〉 vte cakra 를 입력하면 된다. 그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접속이 끝난다. 윈도 3.1에서는 가상단말기를 사용하여 호스트이름에 호스트명(cakra)을 넣어주고 접속하면 된다.

또한 윈도 95의 경우는 tel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작메뉴에서 실행을 선택하여 'telnet 호스트 IP 주소'(telnet 203.252.5.1)를 적어주면 접속이 된다.

그 밖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은 계산소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를 살펴보면 되며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태훈 기자〉

인터뷰 윤종욱 강사

# '교내통신망' 수업에 활용

## 정보교류·질의응답 활성화

Sciver2라는 교내통신망을 '컴퓨터 실습'수업에 활용해 강의해 온 본교 컴퓨터공학과 강사 윤종욱씨를 만나보았다.

**-통신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해 왔다고 들었는데**

=수업 전반을 통신을 이용해 강의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미리 학생들에게 숙지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시험 등에 BBS를 이용하게 하고 접속해보게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계기는**

=강의시작 할 때쯤, 학교내에는 물리학과 소모임에서 만든 BBS Sciver2가 때마침 존재했었고, 그런 통신망을 이용해 중간·기말고사를 치루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더 컴퓨터와 통신에 익숙해지라는 의도에서 시도해 본 것이다.

**-BBS를 이용한 시험출제는 어떤 방법인가**

=우선 학생들은 컴퓨터실습실에서 통신망에 접속을 하며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시험시간에 맞추어 공지사항 비슷하게 화면에 문제를 띄우는 방법을 채택했다. 시험요령은 Sciver2를 접속해보면 게시판에 횡설수설란이나 유머란 같은 것이 있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 그 유머란에 정해진 시간을 주고 글을 올리게 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다른 학교에 출강하면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동국대 같은 경우엔 Sciver2라는 무료 BBS가 존재한 여건이어서 가능했다. 제반시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통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 하게 된 계기는**

=단지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인도해주기 위해서이다. 학생들 스스로 직접해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보조해주는 위치, 그런 위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고 계속 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업 전망은 어떠할 것 같은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업이 곧 자주 시도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방의 어느대는 본교의 Sciver2 같은 BBS 가입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 알고 있다.

그런만큼 정보교류도 활발하고, 교수와 학생간에 e-mail을 통한 상담 및 질의 응답 같은 것도 활성화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수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정식 기자〉


1997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모집

1. 모집인원 : 주간 140명/야간 210명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수능시험과 무관함)
3. 원서교부 / 접수기간
● 1997.6.30(월) ~ 7.11(금) 09:30-19:00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후 면접및등록 선착순
5. 원서교부 / 접수처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혜화관 6층 교학과)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7. 교육과정 특징
●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 2급 응시자격부여 (기사 2급 자격증 취득시 대학졸업학력 독학사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
● 호주 Central Queensland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Murdoch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뉴질랜드 Lincoln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일본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교 유학
● 높은 취업률 (97%) 및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대우
●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실습교육환경
● 대학 캠퍼스내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편의시설

입학문의
TEL : 260-3522~3, 260-3598, 264-0502
FAX : 264-0502, 264-0504
E-MAIL : ZPIDCI03@chollian. dacom.co.kr
온라인통신학교 : 천리안 매직콜 GO DUCSI
주소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26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전산/정보에 강한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1997 전산/정보 경영자과정 (4기)모집

1. 모집인원 : 120명 (주·야)
2. 교육기간 : 16주
3. 모집구분

| 구 분 | 강의요일 | 강의시간 | 모집인원 |
|---|---|---|---|
| 주 간 | 주 2일(화 목) | 14:00 - 17:00 | 40명(1반) |
| 야 간 | 주 2일(화.목) | 18:30 - 21:30 | 80명(2반) |

4. 모집대상
● 기업체 및 공공기관 경영자 및 관리자
● 자영업체 경영자,관리자
●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군인
● 여성 전문직 및 주부
5. 원서교부 / 접수기간
● 1997.6.23(월) ~ 7.11(금) 09:30-19:00 (출장접수 / 상담가능함)
6. 전형방법 : 등록선착순
7. 제출서류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8. 원서교부 / 접수처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혜화관 6층 교학과)
9. 교육과정 특징
● 경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
●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
●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교재
● PC기초에서 멀티미디어, 인터넷까지 실습위주의 수업
● 초고속 통신망(T1)을 이용한 최첨단 컴퓨터시스템
● 최고의 전문교수진 및 실습강사에의한 개인지도
● 586Multimedia PC를 이용한 1인 1대의 철저한 실습교육

21C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22년의 전통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참사람 열린교육 ..... 변화하는 대학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1997학년도 제2학기 초빙분야

■ 서울캠퍼스

| 학 부(과) | 초 빙 분 야 |
|---|---|
| 불교학부 | 종교학(응용불교) |
| | 인도의 고대철학 |
| | 범어·티베트어 |
| 인문학부 | 중국 근대 및 현대철학 |
| 한국어문학부 | 현대시론 |
| | 소설창작론 |
| 영어영문학과 | 미국소설 |
| 중어중문학과 | 중국문학 |
| 반도체과학과 | 반도체재료 및 공정물리학 |
| 법학과 | 형법 |
| | 행정법 |
| 경찰행정학과 | 경찰이론 |
| 사회학과 | 사회변동론 및 사회정책 |
| 북한학과 | 북한경제 및 무역 |
| 회계학부 | 회계정보시스템 |
| 전자·전기공학부 | 초고주파공학 |
| 건축·토목공학부 | 수질환경 |
| 식품공학과 | 생화학 |
| 전산통계학부 | 컴퓨터그래픽스 또는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데이타베이스 |
| 국어교육과 | 고전문학교육론 및 고전시가 |
| 역사교육과 | 역사교육론 및 서양 근현대사 |
| 미술학부 | 서양미술사(미술평론) |
| 연극·영상학부 | 극장기술 |
| | 영화제작기술 |
| 대학원 미술사학과 | 동양미술사 |

■ 경주캠퍼스

| 학 부(과) | 초 빙 분 야 |
|---|---|
| 불교학부 | 선학 |
| 국악과 | 불교음악(범패가능자) |
| 한국어문학부 | 국어학(국어학사) |
| 사회복지학과 | 사회사업방법론(의료사회사업 또는 가족치료) |
| 사회체육학과 | 체육측정평가(실기과목 대체도 가능자) |
| 미술학부 | 순수조각(일반조각) |
| 전산정보학부 | 전산과학 |
| 법정학부 | 정치사상 |
| 법학과 | 헌법 |
| 경상학부 | MIS |
| 한의학과 (임상) | 경주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과 |
| | 분당한방병원 한방침구과 |
| 의학과 (기초) | 병리학 |
| 의학과 (임상) | 포항병원 소아과 |

1. 초빙인원 : 각분야별 1명
2. 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 예·체능계열은 예외)
① 인문, 예·체능계열은 1952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② 사회, 자연계열은 1957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의학계열 및 국제적인 우수논문 또는 연구업적 보유자 (SCI,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저명학술지에 탁월한 논문을 2편이상 게재했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는 연령제한 없음.
다. 각분야 PC사용 가능자
라.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판사진 부착) 3부
나. 연구실적 목록 (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논문개요 순으로 기재) 3부
다.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3부
라. 학위 및 상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서류) 각1부
바.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1993년 9월 1일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 작품 Portfolio) 각1편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1993년 9월 1일이후 각종 수상 및 특허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1부
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에 한함) 각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1997년 6월 18일(수) ~ 6월 20일(금) 17 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단. 경주캠퍼스 의학계열 임상분야 지원자는 동국의료원 총무과에 접수
5. 기타
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본인이 원하는 심사우선 순위가 명기된 별도의 목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다. 제출서류 미비 및 본교내 이중지원은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아니함.
마. 전임강사, 조교수의 경우에는 각각 2년, 4년의 계약제로 임용함.
바. 인터넷이용자는 웹주소 http //rfa dongguk.ac.kr에 접속하면 교수초빙공고문을 down 받을 수 있음.

※본교에서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을 석좌교수, 겸임교수로 특별히 초빙하고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60-3859~3860
●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770-2023~2024
● 동국의료원 총무과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0-1, (0561)770-8111~8112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 우리춤 대공연에서 보여진 '이매방' 선생의 춤사위

## 세련된 멋·정갈한 몸짓 세계으뜸

이 선 옥
뉴욕대 예술학 교수

제 1회 정통 우리춤 대공연(이매방류 중심으로)이 5월 19일 오후 5시 개교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대학원 주최로 열렸다.

이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 7호(승무)와 97호(살풀이)인 이매방류의 춤사위를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뜻깊은 행사로서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인 김명자씨, 법우스님, 박기순씨, 유숙희씨 등의 멋진 춤사위로 정통 우리 춤판이 벌어졌다.

이매방(우봉)선생의 춤사위는 그 멋과 미적 감각이 흥을 초월한 가장 세련된 한줄기의 빛과 같은 경지에서 펼쳐진다. 담백하면서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춤을 우려내는 그는 세계의 명인임에 틀림없다.

이번 공연에 선보인 작품들은 살풀이, 입춤, 검무, 승무등이었다. 살풀이는 너무도 독특하고 화려하여 마치 화창한 봄날 벚꽃을 보는 듯 정겹고 화사한 느낌을 주었다. 그 감미롭고 그윽한 벚꽃의 향기처럼 우리 조상의 한과 영혼의 넋을 흰수건에 담아 구구절절이 풀어가니 그 애간장을 여위는 듯, 그 맺힌 한을 달래주듯, 그 벚꽃을 한잎 두잎 차례로 띄어내듯, 그토록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억울한 감정들을 한잎도 남김없이 풀어헤치는 듯 하다. 그렇게 추고나면 막힌 물이 졸졸 흐르듯 천년묵은 용이 승천하듯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는 다풀려 '봉장취' 빠른 자진모리 장단에 몸과 넋을 얹고 돌고, 감고, 풀어 저 높은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살풀이 춤은 또한 한국 역사속에 여성의 피맺힌 한과 억눌렸던 감정의 뙤리뭉치를 산산히 풀어헤치는 데 그 묘미가 있다. 한많은 여인의 저린 뼈 마디마디에 곪아터진 오장육부가 눈 녹듯이 녹아내려, 빠른 장단으로 발끝과 손끝이 흰 명주수건에 묻어 떨어져 그 애통한 여인의 넋은 한을 풀고 저멀리 극락세계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김명자씨의 살풀이는 차분한 태도와 결코 격하지 않은 감정의 절제로 20분간을 그토록 애통한 구음소리와 처절하게 긁어대는 아쟁소리, 뼈를 여미는 듯한 대금소리에 맞추어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입춤은 이매방류의 독특한 기본 동작들을 모아 보렴/구음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추는 다양한 동작과 묘미를 나타낸 춤이다. 박기순씨와 유숙희씨는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잘 살려 정갈한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입춤의 묘미를 아름답게 살려내었다.

검무는 호남류의 쌍검무로서 박기순씨와 유숙희씨는 각각 느린 장단과 빠른 장단에 맞는 쌍검의 묘미를 서로 주고 받으며 오랜시간을 빈틈없이 잘 소화해냈다.

승무는 이매방 선생의 춤사위를 대표할 만한 예술적 가치와 그 미적 감각으로 세계 어느 곳에 갖다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제일의 명무(남성)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느린 춤사위와 심금을 울리는 북춤으로 이루어진다. 이 춤은 불교 의식 무용에서 그 영향을 받아 유래한 것으로서 기법이 독특하며 구성 또한 체계적이다. 또한 흰 장삼과 고깔, 그리고 붉은 띠를 두르고 추며, 그 음악은 염불(6박자)장단에서 시작하여 도도리, 타령, 잦은 타령, 굿거리, 북치기, 굿거리장단 등으로 맺는다. 승무의 내용은 속세에서 지은 죄를 절대자인 부처님께 속죄하고 업을 닦아 속세와 인연을 끊고 아무 것에도 구애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행인의 모습, 즉 번뇌를 씻고 해탈의 경지로 몰입하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매방류의 북장단은 구정노리, 당악, 마당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북장단은 구성지고 멋있고 힘차기로 가히 한국의 국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우스님(송재섭)의 승무는 박력있고 진지했다. 법우스님의 북소리는 너무도 정열적이면서 호소력이 있어 듣는 이에 마음을 사로잡게 하였고 그의 춤새는 긴 장삼으로 공간구성을 힘있고 처절하게 구사하였으며 그의 춤새는 성을 초월한 중성에 가까운 멋을, 역시 이매방 선생의 멋을 잘 내포하고 있었다. 더욱 마음을 끈 것은 승속을 떠나 부처님의 뜻을 춤으로 표현하고 공양하고자 하는 수행자와 포교사로서 법우스님의 진솔한 자세는 참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승무가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공연의 기회가 많이 이루어져 본교 문화예술대학원이 한국전통예술의 발전과 양성에 학구적, 예술적 밑거름이 되는 선각자로서의 가람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락음악 수용과 비평에 대한 그릇된 편향

## 무조건적인 저항성 부여… 가사에 대한 집착 극복해야

음반을 사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 있다. 이대 전철역 근처에 '파워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처음 갈 때만 해도 정말 놀랐다. 규모도 규모였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락과 헤비메탈 음반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최근에 락 음악을 듣는 인구가 많아졌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문화평론가당의 열성분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락의 부흥'이라고 운운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음반 판매량이나 콘서트에 가 보면 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일단 음반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KBS빅쇼에 시나위가 나왔거나, 크래쉬가 SKC와 같은 큰 레이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2, 3년 전부터 대중문화평론가 일각에서 형성·유포된 락 담론과 민중음악, 노래운동 진영에서의 락 음악에 대한 주목과 시도, 그리고 홍대 근처를 중심으로 번창하는 클럽문화도 지금의 변화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락 음악을 수용 혹은 비평하는 그룹 중에는 두가지 그릇된 편향이 있다고 본다.

한 부류는 락 음악 자체에 근거 없는 저항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스타 평론가들이다. 그들은 주로 세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전인수격인 해석의 전형과 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한국적인 락'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의 전형의 대표적 예로는 펑크락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펑크락은 70년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던 당시의 경제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젊은이들의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직설적 언어와 단순한 리듬으로 표현한 음악이다. 때문에 펑크락은 곡 구성이 대체적으로 간단하고 누구나 즐기기 쉽다. 즉 누구나 쉽게 작곡

하고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펑크락의 특징을 보고 그들은 '평등정신'이라고 운운한다. 한마디로 뮤지션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의 전형이고 전체적 측면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가사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가요의 고질적 문제점이 항상 똑같은 사랑타령만을 늘어놓는 데 있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외국의 락 음악의 경우는 전쟁, 계급갈등, 성, 인종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해 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음악은 소리를 통해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다. 가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조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평론가들은 가사에 집착한 나머지 음악을 듣지 않고 가사를 해석하는 문학비평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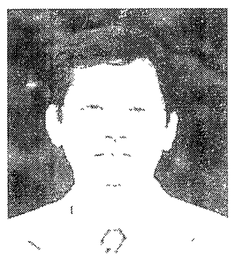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적인 락'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적인 락'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밝힌적이 없는 것 같다. 과연 락 음악의 국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물론 '아메리칸 락'이나 '브리티쉬 하드 락' 같은 말은 있다. 하지만 이는 락 음악의 종주국 두나라에서 초창기에 락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영미에서 출발한 락이란 음악양식을 가지고 출발한 나머지 나라에 있어서 '한국적인 락'이니 '일본적인 락' 혹은 '아일랜드적 락'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적으로 한국의 트래쉬 메탈 밴드인 Crash와 브라질의 트래쉬 메탈 밴드인 Sepultura를 비교해 보라. 아마 음악 자체로는 이들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을 것이다. 꽹과리나 판소리 대목을 집어넣고, 도입부에 태평소 소리 같은 것을 집어넣고 '국악과의 접목'이니 '한국적'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제 서구에서는 밴드들마다 여러 실험적 시도들을 하지만, 그 시도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사고된다. 최근 나온 레드 제플린의 음반을 들어 보면 초창기의 음악적 색채와 분위기가 그들의 신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적 정체성과 스타일의 문제와 락의 국적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락 음악의 그릇된 수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부류는 락을 하나의 기호나 패션으로만 차용하는 부류이다. 대표적으로 걸(GIRL ; Get into Rock Legend)과 삐삐밴드를 말하고 싶다. 이들은 대부분 잘생긴 얼굴에 썩 뛰어나지 않은 연주력을 바탕으로 가요에 락 형식을 덧칠하는 전략으로 성공했다. 특히 '아스피린'이란 히트곡으로 성공했던 그룹 걸은 복고풍 락을 표방했다고 하는데, 한번 건스 앤 로즈와 비교해보라. 왜 그들의 말이 허구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삐삐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소 쇼킹하고 신나는 음악을 하는 이들은 그들의 말처럼 그야말로 유쾌했다. 어찌보면 음악 그 자체를 했다고도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펑크를 들여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인가? 강기영, 박현준 하면 한국에서도 손꼽는 테크니션에다가 보컬은 장관 딸이다. 과연 이들이 이 사회의 낙오자일까? 결코 삐삐밴드의 음악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인 펑크를 연관시키며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 펑크의 원조를 자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펑크락을 자신들의 악세사리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지 펑크 형식을 따온 사이비 펑크일 뿐이다. 그것도 펑크락의 단순한 리듬감만을 차용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딸기가 좋아!'라고 떠드는 것 말이다.

강 성 현
〈사과대 사회학과·4〉

# 달하나 천강에

## 농활에서 컴활로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컴퓨터를 매개로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해 전자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비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매체만으로 공론의 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인 도시의 저소득계층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이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기까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고 해도 구입하기에는 값이 비싼 편이며, 살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 대학은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것부터 나열하자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유지·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초등·중·고등·대학교나 기업에서 처분하는 컴퓨터를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에 보급하고 설치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단 우리는 컴퓨터의 필요성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활동의 대상지역은 도시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과 농촌지역이다. 현재 농활과 비유하자면 이러한 활동을 컴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농활이 농촌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면 컴활은 도시에서는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지방에서는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등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컴활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전국적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는 각 대학이 그 대학이 포함된 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활동의 내역은 크게 컴퓨터 사용, 컴퓨터 보급, 공론의 장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컴퓨터 사용에 관한 것에는 컴퓨터 설치 및 보수, 문제해결, 컴퓨터 사용법 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컴퓨터 교육에서 유의할 점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확보이다. 다음으로 컴퓨터 보급은 오래된 컴퓨터를 재활용하거나 한국통신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하이텔단말기를 이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가능하다. 컴퓨터 보급에서 유의할 점은 컴퓨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과거의 행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 등과 같은 기존의 상용전산망을 이용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보격차 이외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더욱이 사회문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동국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건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 문화단신

◇ 97자유 … 가요·음반 사전심의제 폐지를 기념한 1996년의 '자유'를 계승하는 공연으로 한국대중음악의 현단계 문제점을 제기,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매회당 6개팀이 참여하는 이 공연에 조용필, 강산에, 넥스트, 들국화, 안치환, 이승환, 패닉 등 24개팀의 최고급 뮤지션들이 출연한다.

4일부터 8일까지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공연. 문의(326-1275)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97 하계 대학(원)생 영어연수과정

참가대상
● 좀더 당당하게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대학(원)졸업예정자
● 이번 여름방학동안 유창한 영어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대학(원)재학생

교과과정 안내
Conversational English
Survival English
TOEIC
Reading & Writing
Vocabulary & Usage
취업특강 및 설명회, 면접특강, 모의면접
인터넷특강

교육장소
외대어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일정
● 기 간 : '97.6.30 ~ 8 22 (월-금, 공휴일 제외)
● 시 간 : 오전반 09:00~12 50 (4시간)
오후반 13:00~16:50 (4시간)
● 총 교육시간 : 152시간

모집인원
반별 12명(오전, 오후 각 10반)

참가비용
880,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97 6 2(월) ~ 6 14(토) 09:00~19:00
단, 토요일은 09:00~15 00까지

반배정 시험
'97 6 21(토) 오전 9시부터

특기사항
● 철저한 출·결석관리 및 성적관리
● 외국인 강사, 외국인 학생들과의 합숙연수(3박4일)
● 집중적인 영어회화와 작문, 독해, 취업에 필요한 TOEIC 성적관리까지 (실전 TOEIC 3회)

■ 성적우수자 특전
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유럽 및 미주왕복항공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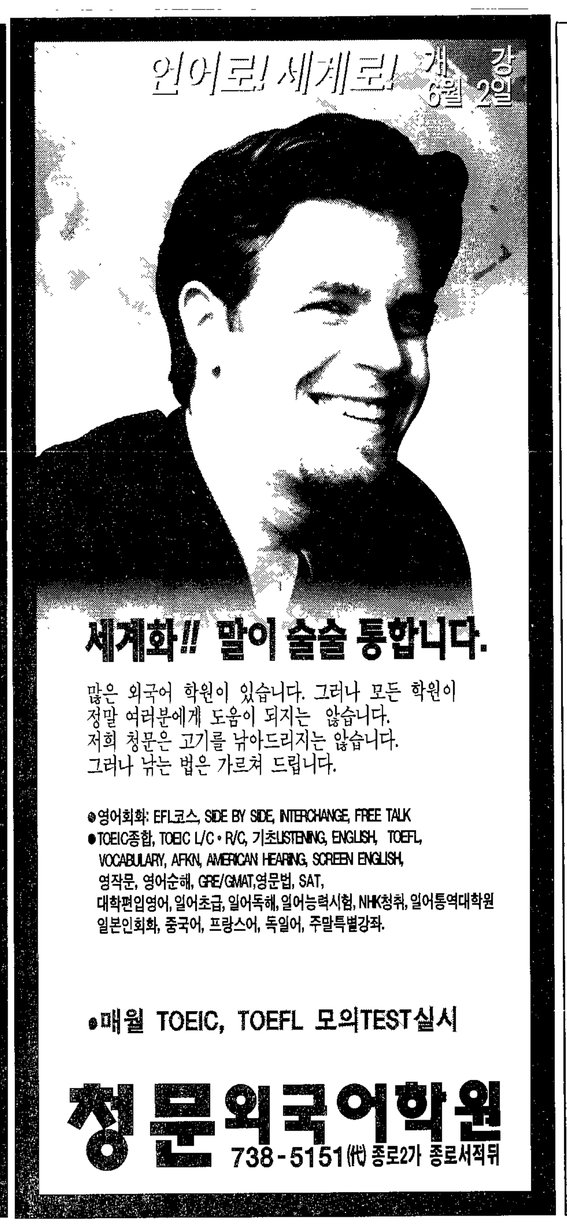
외 대 어 학 원
상담문의 : (02)568 - 181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로부터 30m)

학원강사 연수교육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았다구요?
여기 정말 매력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4학년을 위한 特告

대상: 입시전과목 전공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기간: 4개월(대부분 중도 취업됨)
교육: 주4~5일(오전,오후,저녁 중 택일)
취업: 시내 유명입시학원 및 A급 보습학원원장과 유명강사로 구성된 150여분의 자문교수가 직접 지도, 자문하여 100% 취업(기간내에 취업되지 못하면 취업 때까지 무료 재교육)
보수: 초임150만원부터 1000만원(허위과장없음)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희망과목, 전화번호 명기할 것)
제출: 110-110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368호
* 서류도착 순서대로 가용교육인원의 2배수 서류 심사하여 우편 및 전화로 개별 통보함
* 개인지도 유경험자 우대(이력서에 기재요망)
문의: 415-1796(6월9일자에 한합니다.)




광고문의는 741·1661

# 중앙도서관 9일부터 철야개방

## 기말고사 맞아 20일까지만 한정 실시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은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제 1열람실을 철야 개방한다.

한편, 지난 중간고사 기간과 같이 이번 철야개방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중앙현관문을 폐쇄하는데 지난 철야개방때엔 술에 취한 학생들이 새벽에 도서관에 들어오기 위해 현관 셔터를 부수는 등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측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철야개방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학생들이 시설물을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많은 학생들의 이용을 바랬다.

# 97년 2월 졸업생 취업률 78.1%

## 경제불황탓 예년비해 저조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과에 따르면 97학년도 2월 본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78.1%인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자 총 2천1백29명 중 취업대상자는 1천7백44명이었으며 이중 78.1%가 취업한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천2백59명중 1천 12명이 취업해 취업률 80.38%로 나타났고 여자는 4백85중 3백50명이 취업해 72.1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한편 계열별 취업자 현황은 인문계 2백2명, 사회계 5백44명, 자연계 3백80명, 예·체능계 56명, 사범계 1백80명의 통계를 보였다. 직업별 취업자 현황은 전문가 2백66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 2백72명, 사무직원 8백8명,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16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불황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

| 구 분 | 졸업자수 (A) | 취업 제외자수 | | | | 취업 대상자 (C=A-B) | 무직자 (D) | 취업자 (E) | 취업률 (F=E/C) |
|---|---|---|---|---|---|---|---|---|---|
| | | 진학자 | 입대자 | 미상 | 계(B) | | | | |
| 계 | 2,129 | 270 | 99 | 16 | 385 | 1,744 | 382 | 1,362 | 78.10 |
| 남자 | 1,581 | 215 | 99 | 8 | 322 | 1,259 | 247 | 1,012 | 80.38 |
| 여자 | 548 | 55 | | 8 | 63 | 485 | 135 | 350 | 72.16 |

◇ 경로별 취업자 현황

| 구 분 | 취업자수 (A) | 학교추천 (B) | 비율 (B/A) | 채용시험 (C) | 비율 (C/A) | 부모경영 및 자영 (D) | 비율 (D/A) | 기타 (E) | 비율 (E/A) |
|---|---|---|---|---|---|---|---|---|---|
| 계 | 1,362 | 162 | 11.9 | 782 | 57.4 | 171 | 12.6 | 247 | 18.1 |
| 남자 | 1,012 | 120 | 11.9 | 655 | 64.7 | 102 | 10.01 | 135 | 13.3 |
| 여자 | 350 | 42 | 12.0 | 127 | 36.3 | 69 | 19.7 | 112 | 32.0 |

# 세계화장학 해외연수 실시

## 교환학생 5명 선발 확정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97년도 세계화 장학생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미국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에서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해외연수는 1학년 16명과 2학년 2명등 총 18명이 참가한다. 학술교류부 양영진부장은 "우수한 학생을 지원, 육성하기위한 사업이니만큼 학교에서 항공료 및 일체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술교류부는 중국 남경대와 대만 중국문화대 97년도 교환학생 5명을 선발했다.

교환학생에 선발된 서울캠퍼스의 조영록(중문3)군과 경주캠퍼스의 이성숙(중문3), 이태우(중문3), 서예경(중문3), 김찬배(중문3)군 등 올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자매대에서 수학하게 되며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 오는 28일 고시장학생 선발

계산고시학사(사감=이순용·법학)는 오는 28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97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산고시학사 사감실에서 받으며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0명을 선발하고 원서접수시 학생증(신분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 축구부, 8일 한양대와 첫 경기

축구부는 '서울시장기 겸 전국체전 축구 서울시 예선'에 참가해 오는 8일 오후 4시 효창구장에서 한양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본교를 비롯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한성대, 방송대, 숭실대, 건국대 등 8개 대학이 토너먼트로 치를 이번 경기에 대해 체육부 조경진 계장은 "축구부의 부진을 씻고 이번 대회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 대학원 총학, 상반기 학술제 개최

## 21세기 한국에 초점 초청강연회·단편영화제등 준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안식·사학 박사과정3학기)는 오는 9일까지 상반기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비전'이란 주제의 초청강연회와 '세상을 발로 차서 거꾸로 엎기'란 주제하의 단편 기획영화제로 치러진다.

지난 2일 '새 시대의 경제 정책'이란 주제로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의 강연으로 시작된 초청강연회는 오늘(3일) 오후 3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 '오늘의 난국과 한국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부영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4일 오후 2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민족문학과 역사'란 주제로 소설가 조정래 석좌교수의 강연이, 5일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2시에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영화상영이, 4시에는 김응수 영화감독의 '사회과학과 영화'란 주제의 강연이 각각 열린다. 이어 9일 5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영상원 심광현 교수의 '테크노 문화와 이미지의 문화 정치'란 주제의 강연이 열린다.

한편 단편 기획 영화제는 학술문화관 야외 광장에서 3, 4 양일간 오후 8시에 상영된다. 상영될 영화는 3일에는 '나마스테 서울', '백일몽', '카드이야기', 4일은 '슬픈열대', '먹이', '안개' 등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강연회후에 자유로운 토론시간이 이어지므로 학부생들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는 23일부터 2학기 수강신청 실시

## 사실상 종강후 기간…신청률 저조할 듯

9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내 컴퓨터실습실에서 실시된다.

6월 11, 12, 13일에 실시 예정이던 수강신청기간은 PC로 수강신청을 실시함에 따라 컴퓨터실습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1학년 컴퓨터 실습실 수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기되었다.

학사일정상 6월 27일부터 하계방학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수업이 조기 종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강신청 기간이 사실상 종강후인 기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시한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 과목이 결정되므로 이 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지방 학생들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수업의 결손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추후 수강신청정정시에는 인원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꼭 이 기간안에 수강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2학년 대상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 한국 문학연구소 전교생 대상 '창작교실'

## 20일까지 신청접수…신경림·조정래 교수도 참석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제 13회 여름 창작교실'을 개최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행사의 신청마감은 20일까지로 시, 소설, 극문학, 비평 중 1개부문 이상에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회비는 5만원이다.

1977년 법주사에서 시작해 그동안 30여명의 문인을 배출한, 여름 창작교실은 올해로 20돌을 맞이해 신경림, 조정래 석좌교수를 비롯한 교수, 문인 등 여러 동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번 여름 창작교실은 작품집 제작, 특강, 백일장, 합평, 등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홍기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본교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학생의 창작의욕을 진작시키며 선·후배간의 화합도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권경섭(국문 64졸·태영교역 대표이사) 동문이 국문학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미당창작문학상' 시상식도 창작교실에서 갖는다.

# 총여, 여성연대회의 참여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사3)는 오는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리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 참여한다.

본교를 비롯해 한양대, 국민대, 성균관대 등 총 9개 대학이 참여하는 여성연대회의는 오후 1시에 학교 성폭력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2시에는 금잔디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치른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오는 6월 둘째주에 3번째 동악여성을 발간한다. 이번 동악여성에는 여성주간 평가, 부모성 같이 쓰기, 성정치 위원회 활동상황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3491

◇ 여성들의공간… 항상 남학생들의 놀이, 휴식공간이었던 만해광장은 모처럼 여학생들의 공간이었다. 여성주간을 맞이해 실시한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사진은 발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 〈오인택기자〉

# 학과소식

**반도체과학과**

오는 6일 오전 9시반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연극영상학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졸업공연 '사천의 착한 여자'를 평일에는 7시, 금·토·일요일에는 4시, 7시 30분에 상영한다.

# 회·전·무·대

**뚝!**

○…요즘 신한국당은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은 일이 번번해 당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YS가 당대표인 대쪽이 중국을 방문하는 사이 대선자금문제를 담화형식으로 발표하기로.

'약속'을 어기자 대쪽의 입장은 진퇴양난. 당밖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본 회전 무대자 한마디 "대쪽은 휘지 않는다. 다만 '뚝'하고 돌 맞을 뿐이다."

**날으는 버스요금**

○…26일부터 기습인상된 버스 요금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이렇다할 서비스 개선도 없이 4백원에서 4백30원으로 날치기 통과(?)된 것도 억울한데, 현금 승차시 버스에 거스름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에 버스로 통학하는 한 학생 왈, "버스 요금이 날치기 된것처럼 버스도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깃털 교육**

○…1998년부터 5·18에 대한 국사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는데.

현 교과서의 '광주 민주 항쟁'이 '광주에서 비롯된 5·18민주화 운동'으로 바뀌는 등 사건의 개념이나 과정의 서술 없이 일부 어구만 수정한 것이라고.

이는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인식의 혼선을 정리하는데는 크게 미흡해.

이에 한 국사 선생님 왈 "이제 학생들한테도 몸통이 아닌 깃털만 가르쳐야겠군요?"

**남성주간**

○…지난 26일부터 총여학생회 주최로 '여성주간'행사가 열렸는데.

거리 선전전, 열린강좌, 체육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됐지만, 이번 행사의 주 대상인 여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각 행사장에서 남학생들의 관심은 어느때보다 뜨거웠다고.

이를 지켜보던 남학생, 안타까운 듯 한마디 "지금까지는 '남성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을 기대하세요!"

# 복학·재입학원 접수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97. 7. 30(수) - 8 1(금)

2. 접수 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3. 구비 서류: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
1) 기전역자
①복학원서 1부.
② 전역일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역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
※ 전역후 주민등록초본 미제출시 복학 취소됨.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교 무 처 장

# 일반휴학원 접수

97학년도 제 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신청기간 : '97.6 23(월) - 6. 25(수) = 3일간
2 신청자격 97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1 부.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2학기)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 무 처 장

# 수강신청공고

97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97. 6. 23(월) ~ 6. 25(수), 3일간
2 장 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3. 대 상 : '9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원
4.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학부(과)·계열
5 유의사항
가. PC 수강신청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모든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라며, 금번 기간 중 수강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수강신청정정시 인원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다. 1,2학년 대상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라 제2학기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 학부(과)·계열에서 교부받을 것.
마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별로 개설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비치하였으므로 수강신청시 활용하기 바람.
바. 최초수강신청시 1학년 교필과목 등은 소속학부(과)별로 인원제한되므로 지정강좌를 신청하도록 할 것.

교 무 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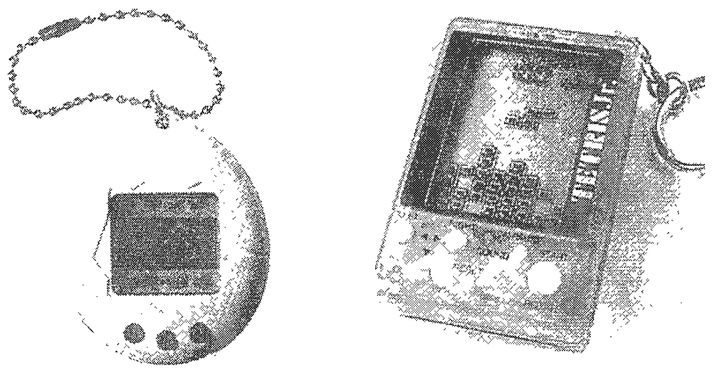
# 방학중 외국어 특강 안내

| 구분 |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 | | English Composition | TOEIC | Listening |
|---|---|---|---|---|---|---|
| | Intermediate | Higher Intermediate | Advanced | | | |
| 1 차 09:00-10.30 | Dennis Prieto (강의실 A) | Angelika Gatos (강의실 B) | Nicholas Garnsion (L206) | Irene Hanssen (L309) | Joseph Schouweiler (Lab A) | Troy Body (Lab B) |
| 1 차 10:40-12:10 | Dennis Prieto (강의실 A) | Angelika Gatos (강의실 B) | Nicholas Garrision (L206) | Irene Hanssen (L309) | Joseph Schouweiler (Lab A) | Troy Body (Lab B) |
| 2 차 09.00-10.30 | Roy Partain (강의실 A) | Leon Kaye (강의실B) | Paul Leslie (L206) | Janet Glendenning (L309) | Martin Sherred (Lab A) | 없음 |
| 2 차 10:40-12:10 | Martin Sherred (강의실 A) | Leon Kaye (강의실 B) | Paul Leslie (L206) | Janet Glendenning (L309) | 없음 | Roy Partsin (Lab A) |
| 수 강 료 | 50,000원 | | | 4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기 간 | 1차:'97. 6. 30 ~ 7.25 / 2차 : '97. 7. 28 - 8. 22. | | | | | |
| 접 수 처 |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 | | | | |
| 접수기간 | '97. 6. '16 부터 선착순 마감(1.2차 동시 접수) | | | | | |

외국어 교육원

# '다마고치 열풍 대학생도 예외 아니다'

## 게임기 보다 책에 열정하는 지성인 다운 모습 보여야




요즘 불티나게 팔리는 히트 상품(?)이 있다면 당연 초소형 게임기일 것이다. 초등학교의 '다마고치' 열풍을 시작으로 대학생에겐 '테트리스'가 유행처럼 번졌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절반정도가 갖고 있다고 하는 '다마고치'는 수업에 방해가 되어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 '다마고치'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초소형 게임기로 세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알을 부화시켜 닭으로 키우는 게임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먹이 주기, 온도 조절하기, 같이 놀아주기, 배설물 치우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약 10일 동안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만약 제 시간에 먹이를 안 주거나 배설물을 안 치워주는 등 불쾌한 환경을 만들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 사실감을 더해준다. 그 밖에도 '헬로 마미', '드래고치' 등 병아리 외에 개, 공룡 등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심지어 '나노 베이비'라는 가상 아기키우기 게임도 등장해 초소형 게임기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학생들도 '다마고치'와 성격은 다르지만 초소형 게임기의 한 종류인 '테트리스'에 빠져 있다.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를 기다릴 때 호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삐삐나 계산기처럼 보이지만 가로 4cm, 세로 6cm, 무게 2.5g에 불과한 이것은 '열쇠고리 게임기', '삐삐 게임기'로 3-4달 사이에 20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렇다면 단순한 초소형 게임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토록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시의 삭막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보유하고 싶은 갈망을 사이버 공간으로 압축시켰다는 데서 기인된다. 또한 사이버 페트(가상 동물 키우기)가 물질 만능시대에서 자신의 분신을 갖고 싶어하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서를 순화시켜 준다는 것도 이유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인기의 차원을 넘어 '신드롬'이 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해 교육부가 휴대금지령을 내렸다니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만해도 어린이날 선물로 게임기보다는 장난감이나 인형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다마고치' 류의 게임기가 인기였다고 한다. 물질 특히 컴퓨터 만능주의가 빚어낸 산물인 게임기는 자칫 사이버 페트에 빠진 학생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지하철에서 게임기를 돌려가며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의 모습도 문제가 심각하다.

틈틈히 책을 보는 모습과 게임기에 열중해 있는 모습. 어느 것이 지성인다운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인택 기자〉

◇사진은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성폭력 박물관

◇총여학생회의 '여성주간'

## 억압 · 차별받는 여성위한 '외침의 공간' 마련

## 미흡한 준비 · 저조한 참여로 기대 못미쳐

이 사회의 절반인 여성. 그러나 절반의 절반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채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 '외침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 · 사학3)가 주최한 '여성주간'이 바로 그 행사이다.

'여성들만의 친밀감의 공간, 문화적 연대감의 형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주변화되던 그리고 잊혀져가는 문화를 재창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미흡한 행사준비와 저조한 참여율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이 사실이다.

26일 불상 앞에서 진행된 선포식은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어졌고 끝까지 기다렸다 참가한 학생은 20여명 안팎이었다. '여성의 즐거운 세상을 일주일만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김인영 총여학생회장의 개회사는 동악 곳곳에 울려퍼졌지만 귀를 기울이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했다.

또한 '안토니아스 라인'을 비롯해 총 4편의 페미니즘 영화가 상영된 영화제는 여성이 주체적 입장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 했지만 영화제 첫날 상영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의견을 묻고 경기종목을 정한 체육대회는 시작을 알리는 '소리지르기'로 개막하여 줄다리기, 장애물 넘기, 꼬리잡기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이중 장애물 넘기에서 밀가루에 묻힌 사탕먹기는 '해방에너지 찾기', 그물통과하기는 '사회억압망 통과하기' 사다리 넘기는 '가부장제 산맥 넘기' 매달린 사과따먹기는 '자유의 열매따기'등으로 종목의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시도했다. 또한 여성운동가 변리나씨의 '포르노에 대한 열린 강의', 변영주 감독의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 라는 두 강연은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한차원 높인 계기가 되었다.

30일 성문화상 시상식을 끝으로 '여성주간'의 막을 내렸다. 총여학생회 측의 준비미흡과 행사일정에 변수(?)도 있었지만 '여성주간'이 남긴 것은 여학생들에게 주체적인 대학인으로서 참여기회를 부여한 점과 여성문화에 대해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아쉬움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여성들의 관심과 호응 부족이었다.

내년의 '여성주간'은 좀더 많은 준비와 대중성을 확보해 즐거운 여성들의 세상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은〉

# 노랑나비가 남긴 것

'헐리우드의 노랑나비' 이승희의 금의환향으로 사회 전체가 한 동안 떠들썩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어딜 가나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독보적인 영웅으로 환대받았다.

작년 '플레이 보이'의 자매지인 '란제리' 9 · 10월호 커버모델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이승희. 그후로 소리 소문없이 익명의 바다 인터넷에 그의 누드 사진이 오르면서 1백8개의 인터넷사이트가 개설되고 네티즌들이 뽑은 누드모델 베스트3을 차지하는 등 이승희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만들어낸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백63cm의 단신에 동양인으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인터넷 조회건수 1위의 스타가 되기까지 인생역정도 파란만장했다. 두 살때 부모의 이혼, 여덟 살때 도미, 아버지의 도박벽, 7명의 새 어머니, 가출과 자살기도 등 불행했던 성장기를 거쳐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 생활, 누드모델로서의 화려한 변신이 그녀의 인생을 말해준다.

이승희의 귀국과 함께 방송 · 신문뿐만 아니라 PC통신 또한 그녀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연일 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으로 열기가 달아올랐다. '아메리칸 드림', '국위선양을 한 자랑스런 한국인', '21세기형 전문직 여성',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 '확실한 주관과 신념을 가진 개척자', '페미니스트' 등의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된 찬성론과 '여성 육체에 대한 상품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야심이 결합된 결과', '천민 자본주의의 병폐인 포르노 모델' 등의 강력한 반대론이 우리 사회에 공존해 있다. 그러나 결국 맹목적인 지지로 '한국에 왔더니 스타'가 되어있던 것이다.

**문 화 시 평**

이렇듯 이승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비단 그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에 있다. 그동안 터부시되어오던 성(性)의 담론이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고,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 한국인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12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방송출연, 누드집 발간, 영화 · CF계약, 자서전 출간, 팬싸인회 등으로 벌어 들인 돈이 무려 수억원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작 그녀는 "나의 누드는 아트"라고 하면서 누드를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사회를 잔뜩 비웃어 주고 갔다. 스스로는 예술이라고 하면서 성과 여성을 눈요기 거리로 하락시키고 누드의 미화로 향락산업까지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한국인으로서 세계 속에 독보적인 존재로 남은 '이승희'는 소비상품주의와 문화식민지의 복합적 산물이 아닌가? 가뜩이나 선정 · 관능적인 대중문화에 이승희가 남기고 간 것은 성 상품을 가시화시킨 현상밖에 되지 않았다.

이승희는 미국으로 떠났다. 일본의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 마광수 · 장정일의 소설, 연극 '미란다'는 외설로 홍역을 앓았지만 이승희의 누드는 예술로 미화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노랑나비의 날개로 살짝 덮어둔 채 유유히 날아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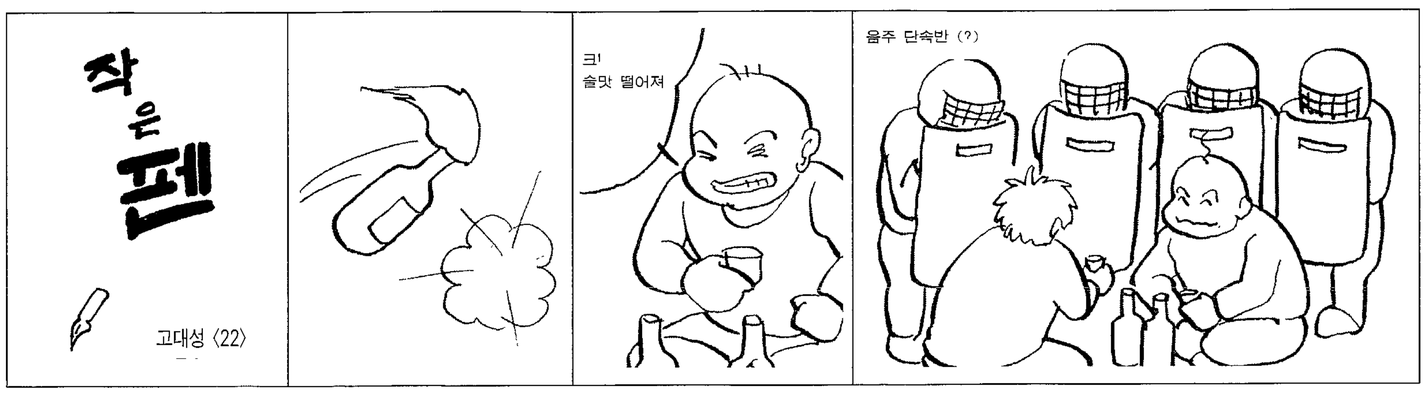
〈오인택 기자〉

**메아리**

## 모순시절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입이 마르게 창을 칭찬하던 장사꾼은 잠시후 방패를 들고 외쳤다. '여기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여보시오. 그 창과 방패가 싸우면 어느것이 이깁니까" 라고 묻자 장사꾼은 말을 잇지 못한다. 장사속에 눈이 먼 무기상의 말에서 기인한 '모순(矛盾)'은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92년 대선당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의 규모나 내역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역사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며 십수년전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혀 사법처리한 본인이 5년전의 일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구속된 현철씨는 대선자금 잉여금으로 자신이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1백20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국가헌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 정신이 없는 두 부자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는 밝히라는 대선자금은 밝히지 않는대신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강력히 말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인양, 개인의 '중대한 결심'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그에게서는 어디서도 문민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창은 정말로 뚫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거듭 반복하는 장사꾼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앞에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일까. 창을 부러뜨리겠다는 것인가, 창을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그래서 담화직후에 청와대로 벼락이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기〉





참사람 열린교육 ..... 변화하는 대학

# "1997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대학원 (주간) ☎ 260-3093.3094

1. 모집과정 각학과 석사 · 박사학위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석사)
2. 모집학과

| 계 열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 인문사회계 |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한문, 사 미술사, 철,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
| 자연과학계 |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가정, 농, 임, 조경 |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
| 공학계 |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
| 예체능계 | 연극영화, 체육, 미술 | 연극영화 |
| 의학계 | 한의학, 의학 | 한의학, 의학 |
| 학과간 협동과정 | 아시아 지역 전공 | |

※ 본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3 원서교부 1997. 6. 3(화) ~ 6 11(수) 09 00~17 00
4 원서접수 1997 6 9(월) ~ 6. 11(수) 09 00~17 00
5.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0(금) 10 00 시험당일 본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각 학과별 실시)
6.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필기고사 영어,전공 2)구술시험(각 학과별로 실시함)
※영어시험은 4개운항(독해력 측정)운제이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 필수 과목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출제함 (박사과정동일)
미술학과 전공시험은 이론 및 Drawing(재료본인지참). 구술고사시 포트폴리오(작품사진자료)를 심의하오니 지참 바람.
나 박사학위과정
1)필기고사 영어,전공(공통,세부전공). 제2외국어(불교 인도철 철학과에 한함)
2)구술시험(각 학과별로 실시함)
※ 제 2외국어 과목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범어, 한문Ⅰ, 한문Ⅱ(불교한문)중 택일
(단, 범어는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한문은 철학과의 동양철학전공자, 한문Ⅱ는 불교학과 지원자에 한함)

● 불교대학원 (야간) ☎ 260-3097.3098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 9(월) ~ 6. 20(금)09 0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6(목) 14 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불교지도자과정 |
|---|
| 가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
|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
| 다. 전형일시 및 방법 1997. 6. 27(금) 14 00 서류전형 및 면접 |

● 행정대학원 (야간) ☎ 260-3102.3103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일반행정,공공정책,관광행정,언론홍보,환경행정,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 안보정책,경찰행정,소방행정,교도행정,사법행정,민간경비,사회복지,북한체제, 북한행정,북한사회,통일정책,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 2(월) ~ 6. 11(수)10 00~17 00
4. 전형일시
1997 6. 14(토) 15 00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우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

| 행정관리자과정 |
|---|
| 1 지원자격 |
| 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경찰 및 소방간부, |
| 나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
| 다. 정부 투자기관, 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
| 라 사회지도급 인사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석사 과정과 동일함 |

● 경영대학원 (야간) ☎ 260-3106.310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경영학과 조직 인사관리, 생산 · 품질경영, 마아케팅, 재무 · 증권금융, 국제경영, 선물 옵션거래(신설), 관광경영(신설), 유통서비스(신설), 광고관리(신설) 전공
나.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회계 전공
다. 경제학과 관리경제 전공
라 무역학과 통상 · 무역이론, 무역실무 · 경영 전공
마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 전공
바.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5. 27(화) ~ 6. 5(목)
4 전형일시
1997 6 14(토) 14 00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및 특별우대전형
1) 공무원, 공인회계사,교직원, 군인 및 조계종 재적 승려, 본 대학원 부부 재학생중 1인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함
2) 5년이상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자, 기업체 · 사회단체의 중견 간부, 고위 공직자, 사법 · 행정 · 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고경영자과정 |
|---|
| 1. 지원자격 |
| 가. 기업체의 대표 및 간부 |
| 나.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
| 다 군고급장교 |
| 라. 노조간부 |
| 마. 정부 각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2. 원서교부 및 접수 |
| 1997. 5. 27(화) ~ 6 5(목) 본 대학원 교학부 |
| 3 전형일시 및 방법 |
| 1997. 6. 14(토) 10 00 서류전형 및 면접 |
| 4. 특전 부부가 동시에 재학하면 배우자에게 수업료 감면의 혜택이 있음 |

● 교육대학원 (야간) ☎ 260-3109.3110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학 과 | 전 공 분 야 |
|---|---|
| 교육학과 |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전공 |
| 교과교육학과 |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증교, 중국어교육 전공 |

*표시는 경주 캠퍼스 수강 가능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5 19(월) ~ 5 30(금)10 3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1997. 6. 7(토) 14 00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시험
6 특전 및 우대전형
1) 본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에 의하여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조계종 재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의 30%)
2) 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 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함

●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 260-3722.3723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관리자과정
2. 모집

| 정보관리학과 | 신문방송학과 | 광고홍보학과 | 정보통신학과 |
|---|---|---|---|
| 정보관리전공 | 신문방송, 출판잡지전공, | 광고홍보전공 | 정보통신전공 |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5 26(월) ~ 6 5(목)17 00
4. 전형일시
1997. 6. 14(토) 14 00(관리자 과정은 13 00까지)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관리자과정 지원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7. 특전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하며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야간) ☎ 260-3602.3603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학 과 | 전 공 | 연 구 분 야 |
|---|---|---|
| 산업과학과 | 건설공학 |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축계획, 도시공학, 방재공학 |
| | 기계공학 | 기계공학, 기계설계, 자동차공학 |
| | 산업경영 | 산업공학, 경영공학, 정보시스템, 인간공학, 산업안전관리,기술경영 |
| | 식품공학 | 식품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공학 및 가공학, 식품위생 및 안전성, 식품생물공학 |
| | 전자 · 전기공학 |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 제어계측, 반도체공학 |
| | 컴퓨터 공학 | 컴퓨터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 분산처리,멀티미디어 |
| | 화학 · 화학공학 | 공업화학, 재료, 고분자, 생물화공학 |
| | 생명자원과학 | 식물자원, 산림자원 |
| | | 응용생물 |
| 환경과학과 | 환경공학 | 수질,대기, 해양, 폐기물처리, 교통 |
| | 환경관리 | 환경계획,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정보 |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 2(월) ~ 6 12(목)17 00 (월, 수요일은 20 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14(토) 14 00 본대학원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실무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하며 공무원, 군인, 전임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최고산업경영자과정 |
|---|
| 1. 지원자격 |
|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 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학력제한없음). |
|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장소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 260-3606.360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학 과 | 전 공 |
|---|---|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
| 연극영화학과 | 공연예술, 영상예술 |
|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
| 환경예술학과 | 환경예술 |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 2(월) ~ 6. 13(금)10 00~17 00 (토, 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1(토) 10 00 본대학원
5 전형방법
가.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있으며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
| 1. 모집분야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
| 2.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 · 문화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 · 조경 등의 유관기관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
| 4. 특전 석사과정과 동일 |

● 지역개발대학원 (경주 · 야간) ☎ (0561)770-2093.2094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모 집 과 정 | 학 과 | 전 공 |
|---|---|---|
| 석사 및 연구과정 | 개발행정 |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 |
| | 지역경제 | 지역경제개발, 산업경영 |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16(월) ~ 6. 27(금) 17 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8(토) 14 00 본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5. 전형방법
가.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나.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가.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에서 우대
나. 공무원, 교직원, 군장교, 조계종 재적승려 등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수업료의 30%)을 지급
다. 공무원 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장학특전이 있음
라 본교의료원(양 · 한방) 의료 혜택

| 최고관리자과정 |
|---|
| 1 지원자격 |
|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공무원 및 군장교,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사회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 260-3114 FAX (02) 260-3692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TEL:(0651)770-2114 FAX (0651)770-2002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증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